

碩士學位論文

중년기의 부부관계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 요구도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李 銀 貞

2003年 8月

중년기의 부부관계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 요구도 연구

指導教授 金 惠 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3年 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제출자 李 銀 貞

李銀貞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8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중년기의 부부관계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요구도 연구

이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혜 숙

중년기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중년기에 겪게 되는 불안과 위기감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년기에 처한 부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년기 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교육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중년을 대상으로 이에 이 연구는 중년기 부부가 중년기의 위기를 수반하는 이 시기를 잘 적응하도록 하고 보다 풍요로 부부교육 실시방법과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중년기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중년들의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주도에 거주하는 40세~60세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총 1,000부를 배부하여 남편 355부, 아내 409부 총 76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 Package를 사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t-test, ANOVA,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도 검증 및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중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에는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및 심리 관련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년기에 처한 사람들은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다. 중년기 부부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부교육 참가경험은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가 남편 54.4%, 아내 55.2%로 부부교육 실시가 비교적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부부간 대화형태나 시간, 의사결정, 애정표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고,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넷째,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따른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부교육은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며, 교육내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방법은 토론과 대화와 강의가 많았고,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많이 나타났다. 부부교육은 주말에 실시되기를 원했고, 후속모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다섯째, 중년기 위기감은 남편들이 아내들 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중 “팔다리는 쭈시고, 몸은 무겁고, 기운이 없어 늙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중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부관계 만족도는 애정표현 영역과 생활영역에서 남편과 아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관련특성의 경우 애정표현 영역에서는 아내들에 비해서 남편들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아내인 경우, 50대인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영역에서 종교는 불교인 경우,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적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가활동, 대화시간,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관련특성의 경우 배우자 직업, 결혼형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월평균소득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하위영역별 부부교육 요구도는 의사소통, 건강, 기타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간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관련 특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아내가, 본인연령이 46~50세 집단이, 고졸이하의 학력인 경우, 종교가 불교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련 특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절충혼인 경우, 초혼인 경우, 주거가 단독주택인 경우, 자가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에서 월평균소득이 200~300만원인 집단이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여덟째,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제모델들의 영향은 개인관련특성, 가족관련특성, 심리관련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부교육 요구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결혼여부,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경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남편인 경우, 본인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초혼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 있어 부부관계 만족도와 중년기 위기감 경험 정도는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화 회귀 값을 볼 때 유의미한 5개의 변수 중 부부관계만족도가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년들은 부부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을 기초로 하여 중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무료교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부부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쉽게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중년기에 관한 이론	7
2.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념들	16
3. 관련변수의 고찰	23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문제	28
2. 조사도구	28
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30
4. 자료분석방법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36
3.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	43
4.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48

5.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	50
6.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	54
7. 부부교육 요구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 -----	60
V. 결론 및 제언 -----	64
참고문헌 -----	67
Abstract -----	73
<부록 1> -----	75
<부록 2> -----	78



표 목 차

<표 1> 중년기 구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 -----	8
<표 2> 국내 연구에서의 중년기 구분 -----	8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	29
<표 4>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 -----	32
<표 5>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	34
<표 6> 결혼생활 만족도 -----	35
<표 7> 부부교육 필요성 및 이유 -----	37
<표 8> 부부교육 참여 여부 -----	38
<표 9>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1) -----	41
<표 10> 하위영역별 중년기 위기감,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교육 요구도 -----	44
<표 11> 개인·가족 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	49
<표 12>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	51
<표 13>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	53
<표 14>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	56
<표 15>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	58
<표 16> 부부교육 요구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 -----	61

부 표 목 차

<부표 1> 질문지의 문항구성 -----	75
<부표 2> 부부관계만족도 및 부부교육내용 요구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	75
<부표 3>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요구도(2) -----	76
<부표 3> 부부관계만족도 하위영역별 분류 -----	77
<부표 4> 중년기 위기감 하위영역별 분류 -----	77
<부표 5> 부부교육요구도 하위영역별 분류 -----	77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가 인구구성의 변화로서, 고령화 현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중·노년층이 늘어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2.1세, 여자 79.5세이다. 반면 가족 계획으로 인해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생활연령상 중년기로 일컬어지는 40-59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중년기는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공헌을 쌓아 가며 인생의 완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 성취 이면에 있어 자아통찰과 가정에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 자아정체감 확립과정에서 심리적 허탈감과 갱년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무력감을 감지하게 된다¹⁾. 또한 중년기에는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하위체계로 부상하는 시기라는 점으로 가정의 정체성과 정서적 분위기 및 가정관리와 같은 규칙들은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시기는 긴장과 갈등, 상실감의 시기라는 부정적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에서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²⁾, “양쪽에서 협공받는 세대”³⁾ 또는 “빈 보금자리기”⁴⁾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정을 배경으로 할 때 이해가 가능하며 특히 이것의 극복이 부부사이에서 조명될 때 상실감이 회복되어 협공받는 느낌이 메꾸어지며, 빈 보금자리의 공허감이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중년층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자녀수의 감소로 양육기간이 짧아져 부부간에 함께 살아 가야하는

1) 신기영·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p.162.

2) E. Leshan(1973),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N.Y.: Waner Paperback Library, pp.48-50.

3) C. E. Vincent(1972), “An Open Letter to Caught Generation”, *The Family Coordination*, Vol.21, N0.1, pp.143-150.

4) D. C.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8, No.4, pp.379-386.

기간이 길어진다. 또한 국가 경제력 또는 사회 여건 등의 변화로 정년퇴직제도의 확산과 조기퇴직이 이루어지면서, 이로 인한 중년층의 실직률이 급증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년기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⁵⁾하고 경제력 상실로 인한 남성의 자살율이 증가⁶⁾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이러한 특수한 가족 문제들이 한국사회에서 중년층의 위기로 나타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해방운동 등으로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중년세대는 전과는 다른 변화와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와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년기 인구의 증가와 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중년들의 영향력⁷⁾ 등으로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는 중년기를 맞은 부부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⁸⁾

이미나(2000)⁹⁾는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 겪는 사춘기는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시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지침들이 제시된 반면, 사실상 성인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역시 중요한 중년기 전환시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지해온 점을 지적하며, 중년기 전환시점이 사실 사춘기 못지 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임을 역설했다. 결국 20대 이후 성인의 위기에서부터 중년의 위기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무관심했으며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중년의 초입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시점이고 내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으며 실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조차 부족하다고 본다.

중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이며, 혁신적으로 삶을 풍성히 하고 결혼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¹⁰⁾.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

5) 조선일보, “황혼이혼”, 10년간 3배 늘어, 2003. 3. 27. 사회면.

6) 조선일보, 불황 때 자살 급증, 2003. 4. 23. 경제란

7)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1.

8) 정현숙(1998), “부부관계의 기초”, 가족생활교육사(2급) 연수과정 연수교재, p.104.

9) 이미나(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한겨레신문사.

10) H.Clinebell, *Growth Counselling for Marriage Enrichment*, 이종현 역(1990), 대한기독교서회, p.145.

향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구성원 모두 재사회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고 동시에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을 발달시켜야만 한다.¹¹⁾ 따라서 중년기에 맞이하는 기회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생활교육, 특히 중년기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결국 중년기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즉 중년기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가족 상호간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의 가능성을 제대로 개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신을 새롭게 하고 결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만큼 큰 의의를 가진다.¹²⁾ 그러므로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교육적 중재를 위해서는 중년기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이 아닌 전반적인 위기극복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연구는 중년기에 처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 이에 중년기 부부관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떤지 살펴보고, 중년들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위기감 경험 정도가 부모교육내용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중년기라는 인생의 특수한 발달단계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우선 알아야 한다. 즉 중년기는 정도의 차이일 뿐 중년의 전환점에 선 많은 이들은 결코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중년기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젊음의 상실감과, 가정, 사회에 대한 불만, 죽음에 대한 의문, 현실에 대한 절망, 변화에 대한 갈망 등으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11) 유영주 외(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p.312.

12) H.Clinebell, 이종현 역(1990), 전제서, p.145.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고 가족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정서적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¹³⁾ 따라서 중년기는 일생의 절정기인 동시에 중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로서 이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로 그 어느 시기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은 결혼하기 전, 신혼 일년간, 그리고 중년기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기간들이다.¹⁴⁾ 이에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시점 중에서도 결혼생활 중반기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년기에 도움을 주는 연구인만큼 그 의의도 크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교육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중년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부부교육 요구도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그들이 위기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년기 전환점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 등을 배움으로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교육이 가족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중년기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 이 연구에서는 Daniel J. Levinson¹⁵⁾의 연구에 따라 40~60세의 연령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13)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1호, p.204.
14) D.R.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pp.179~180.
15) Daniel J. Levinson., Judy D. Levinson.(1996),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2)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란 성숙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결합되는 관계이다. 이 연구에서 만족도는 부부가 지각하는 만족도로 성역할·애정표현·의사소통·성생활·여가생활의 5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으며,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를 부부관계 자체보다 그것을 부부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3) 중년기 위기

중년기 위기는 중년기로의 변화와 적응과정에서 긴장감이나 실망감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 및 과거·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제시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중년기에 느낄 수 있는 중년기 위기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 조사했다

4) 부부교육

부부교육이란 부부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정보, 지식, 지침 등을 마련해 주는 체계적이고 개념화된 교육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중년들의 역할수행을 돕는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교육 참여여부는 연구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본인의 주관에 따라 부부교육 프로그램 참가경험 여부를 파악하였다.

5) 부부교육 내용 요구

교육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부교육내용 중에서 중년기 부부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①중년기 특성 이해 ②부부관계 향상 ③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④부부의 성 관계 개선 ⑤건강 ⑤기타 중년기 관련이해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6)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

다양한 부부생활에 관한 교육적 활동들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일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1998), 세종 연구원.

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부부교육의 실시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실시방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40-60세 남녀로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40대에 치중된 경향을 보여 이 연구결과를 중년기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 사용된 부부교육내용 요구에 대한 조사도구는 Ferris¹⁶⁾, 김혜석¹⁷⁾, 예창명¹⁸⁾의 조사 문항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표준화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부교육내용 요구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여러 측면 중 6영역으로 제한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내용 중에서도 그 영역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16) R. H. Ferris(1985), *Premarital preparation: An educational content design for seventh day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 D. Andrews University, pp.170-176.

17)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p. 147~155.

18) 예창명(1996), 전계논문, pp.90~99.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에 관한 이론

1) 중년기의 정의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를 중년기로 보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 하고 그 정의 또한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인간 발달이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개인 내적 혹은 사회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¹⁹⁾

중년기 구분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 범위와 용어는 <표 1>,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면 중년기 구분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 범위도 유동적이며 차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라는 단어는 20세기 초에는 나타나지 않은 신종언어로,²⁰⁾ 나이 마흔 무렵에 찾아오는 중년기의 심리적 증상에는 우선 평균수명 75세가 전제되었다.²¹⁾ 미국에서는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논의 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중년’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생겨난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중년기가 인생의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²²⁾

Borland(1978)는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막내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로부터 직업에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으며, 보통 진수기(launching stage), 빈 둥우리기(empty-nest period), 탈 부모기(post parental period) 등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²³⁾ Harkins(1978)는 막내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대학진학·결혼 등의 이유로 출가한 이후부터 이미 중년기가 시작된다고 하였다.²⁴⁾

19)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p.29.

20) 임경수, 「중년 리모델링」, CPU, p.16.

21) Babara M. Newman(1982), “Mid-life Development” in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d., Benjamin B. Wolma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p.617.

22) Justin k. Lim(2000), *Male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Dynamics, Theological Issues, and Pastoral Interventions*, Lanh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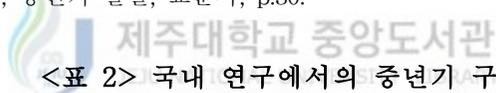
23) 김명자(1993), 「중년기 연구」, 교문사, p.17.

24) 김영자(1999),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6.

<표 1> 중년기 구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연구자(연구연도)	중년기 범위	조작적 정의
Jung(1933)	40세 40세 이후	Midlife Change Afternoon
Erikson(1956)	40~60세	Generativity vs. Stagnation
Neugarten & tmann(1958)	40~54세 55~70세	Early Middle Age Late Middle Age
Jaques(1965)	35~45세	Middle Life Crisis
Deutscher(1969)	사춘기 자녀동거 사춘기 자녀독립	Early Middle Age Late Middle Age
Vincent(1972)	35~55세	Caught Generation
Havighurst(1972)	35~60세	Middle Adulthood
Sheehy(1976)	35~45세	Deadline Decade
Lowenthal et al.(1976)	막내자녀 고교재학	Postparental couple
Duvall(1977)	막내자녀 독립	Middle Aged Parents
Gould(1978)	35~45세	Midlife Decade
Levinson(1978)	40~45세 45~60세	Midlife Transition Middle Adulthood
Farrell & Rosenberg(1981)	38~48세	Middle Aged
Sheehy(1995)	50세 전후	Midlife Passage

자료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p.30.



<표 2> 국내 연구에서의 중년기 구분

연구자(연구연도)	연구제목	구분
김종서 외 3인(1982)	한국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35~60세
김재은(1983)	인간발달의 과정	40~60세
서봉연·유안진(1983)	인간발달	35~60세
김남순(1986)	한국중년 남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40~59세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30~60세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40~59세
김애순(1993)	개방 성향과 직업·결혼·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35~60세

자료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p.31.

그러나 우리 나라 중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막내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완전히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막내자녀가 중학교 재학이상의 40~59세의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년기는 생물학적, 사회학적, 연령, 직업, 가족 생활 주기 등에 있어 다양한 변동이

오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희망과 욕망을 포기하는 시기도 아니며, 위기감만을 느끼는 시기도 아니다. 중년기 역시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전 인생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롭고도 다양한 의미를 제공하여 그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는 시기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상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년기 특성에 따른 딜레마와 고통, 기쁨, 발달과업 등을 수반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발달단계이며, 몇 가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 시기이다.²⁵⁾ 축구경기로 말하면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기로, 전반전을 재검토하고 후반전에 대비하는 시기로서 개인의 일생 중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향을 토대로 생활연령상 40~60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연구대상을 구분하였다.

2) 중년기 특성

중년기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변화 등 발달적 변화와 가족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등 외적환경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며, 특히 직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계속적으로 습득하고, 자녀와 청소년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결혼 후 15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시기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부의 새로운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상호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부부체계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중년기 이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²⁷⁾

중년이 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면서 내적·외적 압력이 최고에 달하게 되고(Raluger & Kaluger, 1979),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과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따르는 상반된 감정으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²⁸⁾

이시기의 특징적인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25) 김영자(1999), 전계서, p.29.

26) 임경수(2002), 전계서, p.6.

27) 정현숙(2001), “디지털 시대, 협공받는 중년기 가족”,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전략, 「제30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p.36.

28) 김명자·송말희(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p.63

첫째, 사춘기 자녀와 비슷하게 중년기에도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로 갈등을 느낀다.²⁹⁾ 중년기의 기본변화 중 하나인 생식능력의 감퇴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의 폐경은 평균적으로 50세 전후에 나타나며, 한때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 특히 우울증이 폐경 탓으로 생각되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폐경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³⁰⁾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의 폐경처럼 명확한 변화가 없으므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약 5%의 남성들이 우울증, 피로, 성적 무력감, 정의하기 힘든 신체적 이상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고 말한다.³¹⁾ 결국 중년기 남녀는 심리적 폐경(psychological menopause), 즉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³²⁾

둘째, 성 역할 정체감과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도와 지적능력이 높다고 한다.³³⁾ 박경숙·김명자(1991)³⁴⁾의 연구에서 양성성 혹은 남성성을 소유한 중년여성이 잘 적응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성 역할 정체감이라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중년기 적응과 성 역할 정체감이 높은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⁵⁾ 결국 남녀 모두 양성성(Androgyny)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중년기 이후 남성에게는 anima(남성 속의 여성)가 증가하여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감각적·협력적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중년기 여성은 animus(여성 속의 남성)가 증가하여 전에는 복종적이고 유순한 여성이 지배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³⁶⁾

셋째, 중년기에는 중심성의 경향(central tendency)과 함께 자신이 허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여, 모든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내성(introspection)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일을 행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적인 자세보다는 환경에 순응하거나 안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

29) 송정아 (1992), 「중년의 위기와 예방」, 생명의 말씀사, p.11.

30) D. E. papalia, S. W. Olds, R. D. Feldman(1989),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II」, 정육분 역(1992), 교육과학사, pp.238~240.

31) 상계서, p.241.

32) 김명자(1998), 전계서, pp.80~93.

33) 김현화·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1호, p.212.

34) 박경숙·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pp.65~80

35) 송정아(1995), “한국도시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1호, p.116.

36) 박승옥(1992), “목회상담적 접근으로서의 중년기 가족 성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세를 보이기도 한다.³⁷⁾

중년기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일에 대한 압력의 증가, 제한된 직업선택의 가능성, 반복된 일과에서 느끼는 가능성, 곧 다가올 은퇴에 대한 상실감, 젊은 동료의 승진에 대한 두려움 등이 중년 남성들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³⁸⁾ 또한 ‘회사인간’ 또는 ‘직장인간’으로서의 삶에 길들여지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 일에 몰두하다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신을 돈버는 기계 또는 하숙생 신세로 비하하기도 한다.³⁹⁾

넷째, 중년기는 자녀양육과 부모봉양의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인생의 단계 중 자신들에 대한 타인들의 배려가 가장 적은 시기이다. 자녀의 독립은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어머니 역할의 감소, 남편의 사회활동 증가, 산업사회에서의 빈번한 지역적 이동 등으로 애정적 후원 체계의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고립감이 극대화되며, 이러한 역할상실로 인한 공허감이 낮아진다.⁴⁰⁾ 결국 중요한 중년기 가족의 특징으로, 가족의 정체성과 정서적 분위기 및 가정관리와 같은 규칙들은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⁴¹⁾

다섯째, 평균가족원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한 이후의 시기가 증가되어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인식되기도 한다.⁴²⁾ 결혼생활에서 중년기 부부관계의 발달 결과,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 중년기 여성의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역할에서나 혹은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성을 행사하며, 남성들도 일에서 주도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⁴³⁾

이상과 같이 중년기 자녀의 독립에 따르는 가족의 재조직화, 부부관계의 재조명,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새로운 기대, 시간전망의 변화, 노부모에 대한 봉양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직업역할의 변화 등⁴⁴⁾ 많은 전환과 변화의 시기이며,

37) 김영자(1999), 전계논문, p.17.

38) E. K. Weller(1983), “A profile of male mid-life concerns”, *Unpublished doctoro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39) 손승영(1997), “경제변화에 따른 조직내 남성의 역할면화인식과 갈등”, 한국건강가족운동본부,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년기 남성이 겪는 갈등과 극복」, 세미나자료집, pp.1~16.

40)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p.151~165.

41) 정현숙(2001), 전계논문, p.34.

42) 상계논문, p.34.

43)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학지사.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갈등과 상실감을 겪을 수 있다.⁴⁵⁾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중년기가 되면서 생기는 시간적 여유에 당황하고 공허감을 경험한다.⁴⁶⁾

그리고 중년기는 개인의 심리 생물학적 과정, 가족주기, 연령, 사회적 배경 등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⁴⁷⁾ 특히 중년기는 자기확신이 증가하는 시기이며⁴⁸⁾ 또한 생의 단계에서 성숙과 성취의 시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적인 성취이면에 있는 자아의 위치를 찾고 자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허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으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년기 가정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년기 자신에게 삶의 도전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3) 중년기 부부관계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배우자선택과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비로소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복권을 사는 일과는 매우 다르며, 한 사람을 만나서 일생을 함께 걷는 일은 모험 이상의 위험을 수반한다.⁵⁰⁾ 만약에 가족이 없었다면 인류의 사회 문화적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언제쯤 생성되었는지 또 왜 생성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리기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⁵¹⁾

44) 김명자(1986), “중년기 주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논문집」, 제21집, 숙명여자대학교, p.36.

45) 신기영(1990),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8.

46) 고은주(1988), “취업유무가 중년기 여성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6.

47)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8.

48) C. J. Erdwins, J. C. Mellinger & E. E. Tyer(1981), “A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Self Concept for Young, Middle-Aged Older Wom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7, pp.484~490.

49) 신기영(1990), 상계논문, p.1.

50) 이다담(2001), 「그녀는 왜 이혼했을까」, 컬처클럽, p.23

51)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하우, p.66.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이혼이나 사별의 증가, 개인주의의 발달, 그리고 결혼제도의 변화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현대 가족구조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자리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년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으며 긴장 또한 많은 시기이다.⁵²⁾ 오늘날 보다 많은 결혼생활이 이혼 때문에 파경을 맞고 있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막내자녀가 출가한 후 20년 이상 더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므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중년기가 생애 과정 중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기라고 한다.⁵³⁾

또한 성역할 의식을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여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는다. 즉 지금까지 남편은 일로서 아내를 가사 및 육아로서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었는데, 중년에 이르러 남편은 일에 쫓기고, 아내는 육아가 끝남으로서 부부관계에 있어 재평가를 하게 된다.⁵⁴⁾

그러나 이러한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러셀에 있어 중년기이란 자기의 사회적 존재확인의 시기이며, 헤세에게 있어서는 참된 내면적 자기, 내적 가치의 발견으로 보고있고, 최근에는 많은 학자(ACME, 1990; 짐 콘웨이, 1996; 여성을 위한 모임, 1996)에 의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⁵⁵⁾

4) 이론적 모델

Erikson은 인간의 자아 발달을 8단계로 설명하면서, 중년기는 유아기, 청소년기와 함께 인간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40세 정도에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생산성(generativity)⁵⁶⁾을 부정적인 면에서 침체성(absorption)⁵⁷⁾이라는 위기를 경험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사회에서 중년기의 침체적 성향들이 성적인 관심으로 부각되는 반면에, 생산성의 상실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음을 관련지음으로써 성과 연관된 침체성에 관심 있는 사회풍조에 대하여 지적하였다.⁵⁸⁾ 그에 의하면 자신들의 인

52) 정현숙(2001), 전개논문, p.36.

53) 김명자·송말희(1998), 전개논문, pp.61-75.

54) 이다 신·마치자와 시즈오, 「중년기의 위기 관리」, 이연수 역(1991), 도서출판 두남, P.14.

55) 상계서, p.200.

56)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

57) Erik Erikson(1980), *Identity Life Cycle*, Norton: New York & London, pp.55-56.

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적인 인생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느끼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에 빠진다.⁵⁹⁾

결국 이시기에 생산성과 침체성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배려와 보살핌으로 나타나는 데, 에릭슨은 생산성이란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성인 중기 말기에 가까이 가면서 사회가 성인에게 요망하는 것이며, 침체성은 대조적으로 성인중기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응답할 수 없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⁰⁾

Peck(1968)은 중년기에 네가지 심리적 발달의 위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⁶¹⁾

첫째 지혜의 중시 대 육체적 힘의 중시로, 지혜는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이며 광범위한 관계 혹은 순수한 인생경험에 주로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시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은 그들이 획득한 지혜가 쇠퇴해 가는 신체기력·정력·젊음의 매력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둘째 사회적 인간 대 성적 대상화로, 중년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남녀를 재정의하여,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친구·동료로서 가치를 둬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감지할 수 있고, 훨씬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정서적 유연성 대 정서적 고갈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또 어떤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정서적 투자를 전환 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와 친구의 죽음 및 자녀의 성숙과 독립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중년기의 중요한 현상이다.

넷째 정신적 유연성 대 정신적 경직으로, 많은 사람들은 중년기까지 인생의 중요한의문점들에 대해 일련의 해답을 구하고, 이러한 해답에 안주하여 새로운 답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생각은 정체되고 새로운 관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Levinson(1978)은 중년기의 발달과제를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재평가 해 보는 것, 기존의 생의 부정적인 요소를 수정하여 중년기의 새로운 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 자신의 생활에 뿌리박혀 있는 양 극단적인 경향성을 조화시켜 통합해 나가는 개별화과정(individuation)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는 Jung(1933)의 개별화 과정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나 중년기 발달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전체로 보았고, Levinson은 젊음/늙음, 파괴성/창조성, 남성성/여성성, 애착/분

58) Erik H. Erikson(1994), *Life Cycle Completed*, Norton: New York & London, p.68.

59) Erik H. Erikson(1994), *Ibid.*, p.68.

60) Erik H. Erikson(1994), *op.cit.*, p.68.

61) 김영자(1999), 상계논문, p.9.

리로 중년기의 개별화 과정을 세분화해서 제시했다. 이러한 상반된 성향은 자아의 외부와 내부세계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별화가 진행됨으로써, 개인은 내적으로 더욱 분화되고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그를 외적인 세계와 연결해 주고 좀더 풍부하게 그것과 교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영역을 개발하기도 한다.⁶²⁾

Vaillant(1977)의 Grant 연구에 의하면, 중년전환기는 새로운 인생단계로의 진입요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종종 십대자녀와 잘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 지나치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Vaillant에 의하면 중년기의 많은 고통은 오랫동안 억눌려 온 고통으로서, 남성들이 이를 처리하기에 충분히 성숙되고 강해진 다음에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이는 중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우울증, 고독, 외로움, 심리적 불안정 등의 공통점은 성공과 성취를 인생최대의 목표로 삼는 전반부의 원칙이, 인생 후반부 즉 중년기에 꽃 피워야 할 진정한 자아의 출현을 억누르기 때문이다.⁶³⁾

Elliott Jaques(1985)⁶⁴⁾는 “성숙의 달성과 함께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은 주된 심리적 과제이다. 역설적인 것은 중년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성취기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중년들은 그 뒷전에서 죽음이 서성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죽음에 대한 묵시적 암시를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체험하는 시기이다. 죽음은 중년기 사람들에게 이제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죽음과 중년기의 관계를 설명했다.

결국 중년기는 자신을 길러주고 긴 세월동안 세상이라는 비바람의 방패막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연로하여 몸도 마음도 약해져 노인이 된 모습, 어리게만 여겼던 자녀가 어엿한 성인이 된 모습, 그리고 현재 중년기로 접어든 자신의 모습이라는 세 개의 거울을 동시에 보면서 현실에 봉착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⁶⁵⁾

이상을 토대로 중년기는 생산과 성취에 위한 인생의 절정기인 동시에 침체와 혼란에 의한 중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로,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생을 재평가하여 이시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야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는 물론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에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62) Daniel J. Levinson et al(1978),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Seasons of a Man's Life)」, 김애순 역(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30.

63) Robert I. Moore and Daniel J. Meckel(1990), *Jung and Christianity*, New York : Paulist Press, p.6.

64) Elliott Jaques(198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Knoxville :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p.506.

65) 윤진(1993),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p.72.; 김명자(1993), 전계서, pp.72~73.; 예창명(1996), 전계논문, p.14.

2.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념들

1)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며,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 도래이후 물질주의, 인간의 획일화, 인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되어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⁶⁶⁾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족관계의 핵심이 되는 중년기 부부들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관계 등 상호세대간의 다양한 문제는 물론 IMF 이후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내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⁶⁷⁾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년기 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사회문제가 계속 관심을 끌게 되면서 중년기 가족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가족과 관계된 제반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년기 가족생활교육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부부교육은 교육적이고 예방적이며, 성장지향을 목표로 하며 개인성장과 부부관계성장에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의 강점을 지지하며,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다.⁶⁸⁾

중년기는 각종 서적이거나 조사 등을 통해서 볼 때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황금의 시기’⁶⁹⁾라고 하는 반면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가장 긴장과 갈등이 높은 시기라고도 하는데, 중년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리가 있다. 즉 가정에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세대’로,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를 봉양하고 수발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자녀들은 호락호락 물러서는 법이 없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중적인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이 늘어간다.⁷⁰⁾ 결국 중년기는 양쪽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긴세대’로, 이중, 삼중의 고난을 떠 안는 시기이다.⁷¹⁾

66) 유영주 외(1996), 전계서, p.314.

67) E. M. Brody(1981), “Woma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 21, pp.471~480.

68) D. Mace(1975), “Marriage enrichment concepts for research”, *The Family Coordinator*, Vol. 24, p.170.

69) 이미나(2000), 전계서, p.20.

70) 김예순(2001), “디지털 시대, 중년의 문제-중년기는 위기인가, 풍요의 계절인가?”,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전략, 「제30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p.9.

71) 이미나(2000), 전계서, p.212.

또한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면에서 서서히 노화가 드러나고, 부모역할의 경감으로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시간이 많아지므로, 부부관계에 대해 새로운 역동이 출현하여 재조정되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다.⁷²⁾ 그리고 직업세계에서는 “승진의 사다리”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며, 항상 정리하고 혹은 조기퇴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⁷³⁾ 특히 ‘테크노 스트레스’로 대변되는 ‘중년 컴퓨터 불안 증후군’은 중년이 된 베테랑 사무직에게 컴퓨터는 지금까지 쌓아온 업무상의 노하우를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적이며, 컴퓨터 세대라는 신세대 직장인들에게 느끼는 소외감도 적지 않다.⁷⁴⁾

한편 중년기는 사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⁷⁵⁾로 사회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책임과 역할, 권력, 경험 등이 절정에 달하고, 판단력, 지혜, 도량, 감상적이지 않은 연민, 조망의 폭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부부교육을 통해 부부관계가 성장하고 질적으로 향상된다면,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부부서로에게 향함으로서, 서로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부부간에 새로운 역할과 생의 목표를 찾아 중년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부교육을 통해 중년기에 느끼는 혼란과 고통은 중년기를 풍요롭게 하려는 삶의 장치이자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고,⁷⁶⁾ 중년기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의 경고음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습득하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부모역할에 있어 자유로워지면서 새삼스럽게 제2의 신혼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시기에 부부관계에 관심이 모아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응해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없게 된 수많은 가족의 긴장과 불안의 증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부갈등, 자녀에 대한 가정기능의 약화, 노인문제, 문화전달의 단절 등 수많은 가정 문제가 돌출되고 있으며, 이혼율도 해마다 10-15%씩 증가되어 결손가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사회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⁷⁷⁾

72) 김명자(1998), 전개서, p.32.

73) 김애순(2001), 상계논문, p.9.

74) 중앙일보, 1997, 5, 7.

75) 김명자(1998), 상계서, p.61.

76) 이미나(2000), 상계서, p.21.

따라서 평생발달적 차원으로서의 중년기 부부교육을 통해서 중년기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자신 및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져 자기 및 부부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부부관계가 향상되고 부부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더욱 더 건강하고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중년기에 겪는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소멸되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능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 없으며, 오히려 그 중요성은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⁷⁸⁾ 또한 인구사회학적변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현대가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으며, 가정이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오늘날 많은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⁷⁹⁾

따라서 현대 사회는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가족생활전반에 걸쳐 인간발달단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집단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가족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생활을 강화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와 행동수정을 위하여 어떻게 실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실감하게 된다.⁸⁰⁾

결국 가족생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기획자의 인격과 교육적인 철학과 관련된 주관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그것은 기획자가 구상하는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무엇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⁸¹⁾ 따라서 가정의 제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히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

77) 유영주 외(1996), 전계서, p.314.

78) 유영주·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 8권 2호, p.50.

79) 정현숙 외(2000),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p.2.

80) 오윤자(1994a),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p.14.

81) 송정아(1995), 전계논문, p.118.; 예창명(1996), 전계논문, p.9.

해서 끊임없는 사회의 재사회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가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⁸²⁾ 최근 워크샵, 회보나 소식지,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프로그램, 책과 팜플렛 등을 자료로 이용하여 교육되고 있다.⁸³⁾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충분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는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⁸⁴⁾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은 개인 및 가족구성원들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가족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과 관계된 사회문제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개발시키고 가족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어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고 가족이외의 대인관계 등 다양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도록 강화시키는 평생발달적 교육임을 알 수 있다.

3) 부부교육 실태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부부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극히 최근 일이며, 그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⁸⁵⁾ 이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교육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① Mace 부부(1973) - Association of Couples for Marriage Enrichment

결혼생활의 향상과 성장, 부부상호간의 관계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사회활동 및 봉사지지, 개개인의 발전과 상호만족으로 결혼이미지 개선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⁸⁶⁾

82) R. Bakalars & B. Petrich(1984), "Family life education : Its philosophy and purpose", *The Family Coordinator*, Vol. 13, No.1, pp.27~37.

83) 정현숙(1998a),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4호, p.56.

84) 예창명(1996), 전개논문, p.26.

85) 김순옥(2001),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의 필요성 및 실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Vol.4, p.62.

86) D. Mace & V. Mace(1976), "The selec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facilitators for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Family Coordinator*, Vol. 25, pp.117-125.; 송정아 외(1998), 전개서, p.152.

② Dinkmeyer & Carlson(1976) - Training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

대부분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기술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자기 자신 이해와 배우자 이해, 배우자에 헌신하기, 자존감 기르기, 칭찬과 격려하기, 대화하기, 갈등하기 등으로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도 다양하다.⁸⁷⁾

③ Bernard Guerney(1977) - Conjug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듣기·말하기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부부의 의사소통패턴을 개선하여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⁸⁸⁾

④ Lori Gordon(1984) - Practical Applic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Skills

경험주의 이론과 대상관계이론, 행동주의 이론과 가족체계이론을 통합한 모델로서,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효과적인 대화기술, 갈등해결 기술, 매일 배우자의 기분 읽기, 알레르기 감정영역 탐색, 의사소통 유형 탐색 등이 프로그램 내용이다.⁸⁹⁾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송정아·김정옥·이희자·박충선·김득성 등이 PAIRS 책 번역과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L'Abate의 Structured Enrichment Program⁹⁰⁾, Travis & Travis의 Pairing Enrichment Program, Rappaport의 Conjugal Relationship Modification Program, 카톨릭재단에서 개발한 Marriage Encounter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참가자들의 부부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사회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훈련기술이 너무 어려워 부부들이 일상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점,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서 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⁹¹⁾

87) Dinkmeyer, D. & Carlson, J.(1984), *Time for a Better Marriage*, NY: Random House.

88) 송정아 외(1998), 「가족생활교육론」, 교문사, p.153.

89) Gordon, L.(1993), *Passage to Intimacy*, NY: Simon & Schuster.

90) L'Abate, L.(1977), *Enrichment : Structural interventions with couples, families and group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91) 이성희(2002),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선택이론, 인지정서행동이론, 관계향상기법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6호, p.12.

(2)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① 학술지에 발표된 부부교육 프로그램

- 최혜경·노치영·박의순(1994)⁹²⁾ -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 오윤자·유영주(1994)⁹³⁾ -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 유은희·정현숙(1995)⁹⁴⁾ -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 송정아(1996)⁹⁵⁾ -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 이창숙·유영주(1998)⁹⁶⁾ - 부부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 정현숙(1998)⁹⁷⁾ - 일·사랑·가족 함께가기
- 이경희·옥선화(1999)⁹⁸⁾ - 부부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시안)
- 김순옥(2001)⁹⁹⁾ -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 최규련(2002)¹⁰⁰⁾ - 농촌 부부평등 교육 프로그램
- 이성희(2003)¹⁰¹⁾ -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

② 대학 부설기관의 프로그램

대학 부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개별학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¹⁰²⁾

- 카톨릭대 심리학과 상담실 -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

-
- 92) 최혜경 외(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2권 2호, pp.171-180.
- 93) 오윤자·유영주(1994),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 94) 유은희·정현숙(1995),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 연구소 연구 보고서, 제 2권, pp.44-58.
- 95) 송정아(1996b),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1호, pp.113~130.
- 96) 이창숙·유영주(1998), “부부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1호, pp.46~71.
- 97) 정현숙(1998) “부부교육 프로그램: 일·사랑·가족 함께하기”,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생활교육, 도서출판 하우, pp.134~148.
- 98) 이경희·옥선화(1999), “자기 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8호, pp.29-42.
- 99) 김순옥(2001), 전개논문. pp.137~157.
- 100) 최규련(2002), “농촌 부부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3호, pp.73~85.
- 101) 이성희(2002),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선택이론, 인지정서행동이론, 관계향상기법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6호, pp.11~24.
- 102) 문혜숙·김일명(1996), “수원·화성 지역 여성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권, p.53.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상담교육센터 - 부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
- 성신여대 심리건강연구소 - 부부 대화훈련
-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 부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③ 종교기관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회를 중심으로 부부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양하다. 종교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에 비해 전문적으로 가족생활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¹⁰³⁾

- ME 본부(카톨릭교회) - ME(Marriage Encounter)
- 한국 행복가정운동 협회 - ME와 연계하여 성교육, 혼인교육, 가족생활
-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 - 부부성장교육
-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 행복한 가정세미나
- 사람의 교회 - 부부 소그룹 모임
- 불교 사회복지 교양대학 - 부부는 동반자

④ 사회단체의 부부교육 프로그램

사회단체기관에서는 대학 부설기관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위주의 대형강좌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⁴⁾

- 서울시 가정상담소 - 가족 대화의 밤
- 광진종합사회복지관 - 행복한 가정세미나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
-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 부부유치원¹⁰⁵⁾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부부가 함께 하는 대화기법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부부관계프로그램,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
부부대화법

103) 오윤자(1992), 전계논문, p.220.

104)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p.25~28.

105) 부부대화 예절을 배우는 실천프로그램

4. 관련변수의 고찰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의 특성과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적합한 것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특성파악과 위기를 경험 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¹⁰⁶⁾

특히 중년기는 자아정체감, 부부관계, 부양능력에의 자신감, 건강, 연령, 자녀관계 등에 의해 위기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¹⁰⁷⁾ 중년기 위기감은 단순히 개인이 처한 상태보다는 사회체계 내에서 개인이 환경과 어떤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⁰⁸⁾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년기의 특성 및 상황을 파악한 다음 부부교육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 내용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배우자에 대한 이해, 자아 존중감 확립 등에 관한 3가지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송정아(1996)¹⁰⁹⁾의 연구에서 뚜렷이 보여지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건강가족의 중요 요소인 만큼 조선경(1989)¹¹⁰⁾, 오윤자(1994), 유영주·오윤자·이정연(1995)¹¹¹⁾, 김순옥(2001)의 연구에서 꾸준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족생활교육에서 의사소통기술 습득을 공통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¹¹²⁾ 의사소통 훈련은 부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사

106)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Life Education(1968),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 A Framework for family life educators", The Family Coordinator, Vol.17, p.211.

107) 김명자(1989), 전개논문, pp.88-89.

108) 김애순(1993), 전개논문, pp.3-4.

109) 송정아(1996), 전개논문, pp.113-130.

110) 조선경(1989),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강화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11) 유영주 외(1995),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5호, p.10.

112) 예창명(1996), 전개논문, p.22.

소통의 강조는 국외의 가족생활교육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가족내 의사소통이 실시되고 있는 Northern Utah 지역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 가족생활의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Olson의 연구도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¹³⁾

그밖에 Northern Utah¹¹⁴⁾ 지역에서는 상호이해하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 변화상황에 대한 대처법, 세대차 극복, 부모와 자녀의 신뢰감 형성, 아버지 역할 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이 실시되었으며, Olson(1986)¹¹⁵⁾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여가활동, 그리고 자녀양육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NCFLE(1968)¹¹⁶⁾은 대인관계, 자기이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 자녀양육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노년기를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을 연구한 어성연(1994)¹¹⁷⁾은 여가시간의 활용영역, 가족관계영역, 건강한 노년생활 영역, 가계운영 영역의 순으로 노인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2000)¹¹⁸⁾는 중·노년기를 위한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도 중년기 교육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년기 가족생활교육은 위기감과의 관련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강정희(1996)¹¹⁹⁾의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중년기 위기감 이해, 자아정체감 확립, 가정생활교육, 미래지향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4가지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자(1999)¹²⁰⁾의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은 중년기 발달 특성과 위기현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중년기 부부교육에 초점을 두었는데, 중년기의 문제와 위기감을 개인 내적(신체적, 성격적, 지적영역) 변화, 가족 및 사회관계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가족상담연구원에서

113) D. H. Olson, D. G. Fournier & J. M. Druckman(1986), *PREPARE II*, Minneapolis: Prepare Enrich Inc, pp.1~8.

114) C. J. Skidmore & J. D. Schvaneveldt(1973), “Reaching the community through a family life conference”, *The Family Coordinator*, Vol. 22, pp.465~469.

115) D. H. Olson, D. G. Fournier & J. M. Druckman(1986), op.cit., pp.1~8.

116)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Life Education(1968), op.cit., pp.211~214.

117) 어성연(1994),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 요구도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pp.25~60.

118)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pp.121~136.

119) 강정희(199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20) 김영자(1999), 전제논문, p.33.

는 “중년의 위기 예방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어 부부 상호작용강화 및 부부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중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송말희·김명자(1999)¹²¹⁾의 “중년기 주부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였고, 김양호·배선희·송말희(2001)¹²²⁾는 “중년남성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자신,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 전환을 도와 그들이 평등한 부부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연숙(1998)¹²³⁾의 “중년기 부부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중년기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라 생각된다.

또한 건강과의 관련성 연구도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중년기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의 의미를 알아 자신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성인병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미리 예방 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의 방법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⁴⁾

한편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¹²⁵⁾과 “치매노인 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¹²⁶⁾의 개발이 이루어져, 가족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문제 방지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가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각 개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년기에 나타나는 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TV, 책, 영상매체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다. 중년기에 관한 연구와 미디어의 반응은 확실히 중년기가 사회에서 큰 관심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

121) 송말희·김명자(1999), “中年期 主婦 對象 家族生活教育 프로그램 開發-成人未婚子女와의 關係向上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2호, pp.153-168.

122) 김양호 외(2001), “중년 남성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2호, pp.1~12.

123)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학지사, pp.225~231.

124) 상계서, pp.274~285.

125) 김태현·전길양(1996),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pp.77~96.

126) 이연숙(1998), 전계서, pp.250~261.

다.¹²⁷⁾ 특히 90년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The Bridge of Madison County)』와 『셸 위 댄스(Shall We Dance)』라는 영화도 많은 중년들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고 있고, 서적은 물론 영화 등에서 중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중년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며, 그들의 실제 교육 요구도를 근거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다. 또한 중년세대를 중심으로 삼세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통해 가족간의 통합을 이뤄야한다¹²⁸⁾는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듯이 중년기 부부들의 전반적인 특성 이해 및 이 시기에 겪게되는 제반 위기현상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적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중년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나아가 가족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실시방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수행해 나가면서 더욱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최적의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목표영역을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설정하여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¹²⁹⁾

Anderson(1984)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의 일이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활동하기 편한 장소가 좋다고 했다. 이에 “부부 참만남” 프로그램은 44시간 집중적 주말프로그램으로 장·단점이 따른다.¹³⁰⁾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주말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주중에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형태도 있다. 특히 주말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2-4시간씩 8-15주 동안 행해지며, 많은 학습과 기술들을 실행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비정규적인 참석 등으로 교육의 초점을 약화시킨다는 단점도 있다.¹³¹⁾

127) 임경수(2002), 전게서, p.17.

128) G. W. Wise & Velma McBride Murry(1987), “The Empty Nest : The Silent Invasion on Two Fronts”, *J of Home Economics*, Spring, pp.49~53.

129) 한국가족관계학회 편(1998), 전게서, PP.72-73.

130) 김홍숙(1994),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p.25.

131) 김주혜(1994), “의사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P.34.

한 강좌 당 집단의 규모는 교육의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부부관계강화 프로그램을 경우 5-6쌍이 좋으며 7쌍 이상은 프로그램을 감소시킬 수 있다.¹³²⁾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는 활동적이고 직접적인 가운데 피드백을 주고 의사소통유형의 모델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³³⁾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익숙하도록 하고 전체분위기를 자유로우며 신뢰감 있게 유지함으로써 교육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¹³⁴⁾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한 명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남-녀로 구성된 가족생활교육자보다 집단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부부들이 자기노출에 더 도움이 되며, 전달방식은 단회적 전달방식과 연속적 전달방식이 있다.¹³⁵⁾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자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용부담이 없고 대상선정이 용이한 단회적 방법을 택할지, 혹은 연휴나 주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연속적 방법을 택할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강의나 집단 및 커플토의, 기술훈련, 사례연구, 브레인스토밍, 역할놀이, 필름상영, 질의응답, 시청각 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녹음기, 레코드, 전축등의 음향기 교재와 TV, 녹화자료 등의 영상교재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컴퓨터 보조기구 등의 자동화 장치 사용도 가능하다.¹³⁶⁾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이전단계로 먼저 중년기 부부들의 가족생활교육-부부교육-에 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세대간의 문제해결과 가족의 정서적 복지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년기 부부관계향상을 위해 실제 그들의 교육 욕구를 반영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중년기 부부들이 부부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자신과 부부, 나아가 가족 전체를 기능적으로 이끌고 아울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132) 예창명(1996), 전계논문, P.28.

133) C. F. Dorlac(1981), op.cit., P.22.

134) 김주혜(1994), 전계논문, p.35.

135) 송정아(1996), 전계논문, p.119.

136) 김혜석(1990), 전계논문, pp.52-71.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남녀의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도를 남편과 아내간 비교하여 중년기 부부들에게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 및 중년기 위기감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년기 부부교육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경변수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배경변수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배경변수,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위기감에 따라서 부부교육 요구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

이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개인관련 변인(성,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여부, 중년기 위기감, 결혼만족도), 가족관련변인(배우자 연령, 배우자 학력, 월평균 소득, 결혼만족도)과 부부교육 요구도,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의 종속변수인 부부관계 만족도(10문항), 부부교육내용 요구도(25문항)에 관련된 척도는 Ferris(1985), 김혜석(1990), 예창명(1996), 김명자·송말희(199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2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내용은 다시 수정하여 쉽게 풀어서 표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부부교육 요구도(25)	부부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1=전혀 필요하지 않다 3=보통 5=매우 필요하다
개인관련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결혼생활만족도	1=남 2=여 세 교육년수 1=불교 2=기독교·천주교 3=기타 1=전문직, 행정·관리직 2=사무직, 판매직 3=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4=서비스직, 파트타임, 임시직, 무직, 주부 원만하고 좋은 정도(여가활동, 대화시간, 애정표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가족관련변수 배우자연령 배우자학력 배우자직업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결혼형태 결혼여부 월 가계소득 가족형태	세 교육년수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1=단독주택 2=기타 1=자가 2=기타 1=중매혼 2=연애혼 3=중매+연애 1=초혼(유지) 2=기타 조사대상자 가계의 월평균 총소득(단위 : 만원) 1=핵가족 2=기타가족
심리관련변수 프로그램 참여경험 부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부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여부	과거 부부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 부부교육 참가 후 소감 1=전혀 도움되지 않음 3=보통 5=매우 도움됨 부부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태도 1=전혀 필요하지 않다 3=보통 5=정말 필요하다
실시방법 관련변수 교육시기, 시간, 기간, 요일, 횟수, 강사, 실시기관, 방법, 참가비, 강사, 고려사항 후속모임	부부교육프로그램 실시방법 요구도 프로그램 참가 후 후속모임의 필요성 여부 1=전혀 필요하지 않다 3=보통 5=매우 필요하다
부부관계만족도(10) 중년기 위기감(5)	원만하고 좋은 정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위기감 경험 인지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 5=정말 그렇다

1) ()안의 숫자는 문항수임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형으로 <정말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점수는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부부관계만족 및 부부교육내용 요구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또 중년기 위기감(5문항)에 관련된 척도는 김애순(1993)¹³⁷과 김명자(1998)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항목간의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변인별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부표2>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문제의 설명변수는 비교를 위해 동일한 변수들을 고려했다.

개인관련변수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과 함께 결혼생활 만족도와 중년기 위기감 등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했다. 이는 중년의 일반적인 특징 뿐 아니라 부부교육내용 및 실시방법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중년에게 중요한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 만족도, 그리고 중년기 위기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가족관련변수에는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즉, 배우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결혼여부, 결혼형태, 가족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심리관련변수에는 프로그램 참여경험, 참여 후 소감, 프로그램 필요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실시방법 관련변수로 교육시기, 시간, 기간, 요일, 횟수, 실시기관, 진행방법, 참가비, 강사,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는 문항과 후속모임여부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와 조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는 2002년 8월 1일부터 31일 까지 6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137)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결혼·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년기 인구를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등 중년기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총 1,000부를 배부하여 812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총 76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부교육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부부관계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에 따라 남편과 아내간 비교를 위해 평균을 구하고, t-test, ANOVA로 유의도 검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또 부부관계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요구도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구하고,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의 성별에 따라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중년기 부부교육내용 요구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관련 특성과 가족관련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관련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개인관련 특성은 <표 4>와 같다.

< 표 4>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

(N=764)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개인관련변수	본인 성별	남	355
		여	409
	본인 연령	40~45세	310
		46~50세	178
		51~55세	217
		56~60세	59
	본인 학력	중졸이하	113
		고졸	364
		전문대졸 이상	287
	본인 종교	불교	324
		기독교·천주교	206
		기타	234
	본인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113
		사무·판매·서비스직	182
	주부·무직	185	
	기타	284	
연속형 변수		M	SD
	본인 연령(세)	47.88	5.25
	본인 교육수준(년)	12.85	2.79
	결혼생활만족도(1-5점)	2.49	.67
	중년기 위기감(1-5점)	3.31	.92
	부부교육 요구도(1-5점)	2.09	.60

1) 종교 : 기타에 '종교 없음'이 포함됨.

2) 직업 : 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355명 46.5%, 여성이 409명 53.5%로 총 764명이며, 여자가 조금 많았다. 연령은 40~45세가 40.6%, 46~50세가 23.3%, 51~55세가 28.4%, 56~60세가 7.7%로 40~45세인 대상이 가장 많으며, 51~55세, 46~50세, 56~60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7.88세였다.

본인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이 37.6%, 고졸이 47.6%, 중졸이하가 14.8%로 고졸이 가장 높았고, 평균교육수준연한 12.8년으로 대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은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 분포는 불교 42.4%, 기타 30.6%, 기독교·천주교 27.0%순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 가정에서는 불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전문·행정·관리직이 14.8%, 사무·판매·서비스직이 23.8%, 주부·무직이 24.2%, 기타가 37.2%로 제주지역의 수입원이 과수원과 어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가족 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47.4세이고, 44세 이하가 31.8%, 45~50세가 39.6%, 51세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중년기이고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본인의 연령층보다 배우자의 연령층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학력을 고졸이 59.2%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 이상이 36.9%, 중졸이하가 3.9% 순이며, 평균교육연한이 12.9년으로 배우자 교육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직업은 주부·무직이 44.9%로 가장 많았고, 전문·행정·관리직이 20.2%, 기타가 19.0%, 사무·판매·서비스직이 15.9%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50.8%, 아파트 26.8%, 기타 22.4% 순이고,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82.2%로 가장 많고, 전세 9.7%, 기타 8.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가정이 대부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이 282.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2003)에 의하면 2003년 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40세 이상이 평균 298만원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중년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형태는 연애혼이 50.7%로 가장 많았고, 절충혼 26.7%, 중매혼 22.6%로, 조사 대상자들이 중년기이지만 이 시기에도 대부분이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N=764)

범주형 변수		빈도	백분율(%)
가족 관련 변수			
배우자연령	44세 이하	234	31.8
	45~50세	292	39.6
	51이상	211	28.6
배우자학력	중졸이하	29	3.9
	고졸	436	59.2
	전문대졸 이상	272	36.9
배우자직업	전문·행정·관리직	149	20.2
	사무·판매·서비스직	118	15.9
	주부·무직	140	44.9
	기타	330	19.0
주거 형태	단독주택	388	50.8
	아파트	205	26.8
	기타	171	22.4
주택소유형태	자가	628	82.2
	전세	74	9.7
	기타	62	8.1
결혼 형태	중매혼	173	22.6
	연애혼	387	50.7
	중매+연애	204	26.7
결혼 여부	초혼유지	713	93.3
	기타	613	6.7
가족 형태	핵가족	685	89.6
	기타가족	79	11.4
연속형 변수		M	SD
배우자 연령(세)		47.45	5.96
배우자 교육수준(년)		12.96	3.19
월평균 가계소득(단위 : 만원)		282.59	219.40

- 1) 직업 : 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 2) 주거형태 : 기타 (연립·빌라 포함)
- 3) 주택소유형태 : 기타(월세·사글세 포함)
- 4) 결혼여부 : 기타(사별·별거·이혼·재혼 포함)
- 5)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만 사는 경우, 미혼자녀가족 포함)
기타가족(장남·딸 부부/ 친척·기타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3) 결혼생활 만족도

<표 6>은 중년기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부관계에 관한 실태분석이다.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6> 결혼생활 만족도

(N=764)

변수		남편	아내	전체	M	SD
		빈도(%)	빈도(%)	빈도(%)		
대화 형태	남편이 말하고 아내 듣기	47 (13.2)	37 (9.0)	84 (11.0)	2.67	0.83
	부인이 말하고 남편 듣기	82 (23.1)	95 (23.2)	177 (23.2)		
	둘 다 잘 함	192 (54.1)	211 (51.6)	403 (52.7)		
	둘 다 별로 안 함	34 (9.6)	66 (16.1)	100 (13.1)		
애정 표현 만족도	매우 만족	57 (16.1)	36 (8.8)	93 (12.2)	2.40	0.82
	비교적 만족	168 (47.3)	162 (39.6)	330 (43.2)		
	보통	117 (33.0)	176 (43.0)	293 (38.4)		
	비교적 불만족	13 (3.7)	21 (5.1)	34 (4.5)		
의사 결정	남편 주도	89 (25.1)	74 (18.1)	163 (21.3)	2.58	0.96
	아내 주도	32 (9.0)	55 (13.4)	87 (11.4)		
	부부 공동	188 (53.0)	230 (56.2)	418 (54.7)		
	내용에 따라 각자	46 (13.0)	50 (12.2)	96 (12.6)		
여가 활동	매우 만족	28 (7.9)	31 (7.6)	59 (7.7)	2.75	0.90
	비교적 만족	127 (35.8)	100 (24.4)	227 (29.7)		
	보통	168 (47.3)	185 (45.2)	353 (46.2)		
	비교적 불만족	27 (7.6)	68 (16.6)	95 (12.4)		
이유 (여가 활동 불만족)	경제적인 이유로	45 (21.6)	32 (11.3)	77 (15.7)	2.84	1.60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93 (44.7)	134 (47.5)	227 (46.3)		
	여가 즐길 기술과 방법이 없어서	13 (6.3)	24 (8.5)	37 (7.6)		
	공동의 흥미 거리가 적어서	24 (11.5)	25 (8.9)	49 (10.0)		
선택 시 의견충돌이 많아서	16 (7.7)	28 (9.9)	44 (9.0)			
기타	17 (8.2)	39 (13.8)	56 (11.4)			
대화 시간	매우 충분	31 (8.7)	21 (5.1)	52 (6.8)	2.83	0.86
	충분	73 (20.6)	96 (23.5)	169 (22.1)		
	보통	208 (58.6)	221 (54.0)	429 (56.2)		
	부족	33 (9.3)	48 (11.7)	81 (10.6)		
애정 표현	매우 부족	10 (2.8)	23 (5.6)	33 (4.3)	2.44	0.94
	항상 한다	48 (13.5)	55 (13.4)	103 (13.5)		
	가끔 하는 편	181 (51.0)	159 (38.9)	340 (44.5)		
	보통	82 (23.1)	135 (33.0)	217 (28.4)		
결혼 생활 만족도	별로 하지 않음	35 (9.9)	50 (12.0)	85 (11.1)	2.33	0.85
	전혀 하지 않음	9 (2.5)	10 (2.4)	19 (2.5)		
	매우 만족	63 (17.7)	32 (7.8)	95 (12.4)		
	비교적 만족	185 (52.1)	210 (51.3)	395 (51.7)		
계	보통	94 (26.5)	130 (31.8)	224 (29.3)		
	비교적 불만족	5 (1.4)	20 (4.9)	25 (3.3)		
	매우 불만족	8 (2.3)	17 (4.2)	25 (3.3)		
	총합	355(100.0)	409(100.0)	764 (100.0)		

대화를 할 때 남편 54.1%, 아내 51.6%가 서로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인이 말하고 남편이 듣기가 남편 23.1%, 아내 23.2%로 나타나, 이시기의 특성상 남편보다는 아내의 성역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애정 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남편 53.0%, 아내 56.2%로 나타났고, 반면 내용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는 경우도 남편 13.0%, 아내 12.2%나 되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편의 44.7%, 아내 47.5%가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을 보였다. 이는 최근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시간이나 경제력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간의 대화시간에 대해서도 보통 이거나 혹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편 88.9%, 아내 82.6%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결혼생활에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1) 부부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필요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조금 필요”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편 67.8%, 아내 69.4%로 전체 68.7%나 되어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부부교육이 “별로 필요하지 않음”과 “전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편이 32.2%, 아내가 30.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보다 부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예창명(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취업주부의 경우 91.27%, 비취업주부의 경우 84.48%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부부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중년기 부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편 241명, 아내 284명 총 5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부교육 필요 이유는 “중년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로 남편 30.3%, 아내 41.2%로 아

내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년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년기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달려있고, 또한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중년기에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부부교육 필요성 및 이유

빈 도(%)

변 인		남 편		아 내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필 요 성	매우 필요	47	13.2	72	17.6	119	15.6
	조금 필요	194	54.6	212	51.8	406	53.1
	조금 불필요	79	22.3	84	20.5	163	21.3
	매우 불필요	35	9.9	41	10.0	76	9.9
	계	355	100.0	409	100.0	764	100.0
필 요 이 유	현재의 부부관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44	18.3	62	21.8	106	20.2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43	17.8	28	9.9	71	13.5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62	25.7	60	21.1	122	23.2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73	30.3	117	41.2	190	36.2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8	7.5	14	4.9	32	6.1
	기타	1	0.4	3	1.1	4	0.8
	계	241	100.0	284	100.0	525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남편의 경우는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인간발달단계를 알아 중년기에 처한 현재의 부부관계 재평가를 위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성생활 및 갈등해결 기술을 익혀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순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간발달단계를 알아 중년기에 처한 현재의 부부관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아름다운 성생활 및 갈등해결 기술을 익혀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순으로 나타났다.

“인간 발달 단계를 알아 중년기에 처한 현재의 부부관계 재평가하기 위해” 항목을 개인적 측면으로 본다면 남편 18.3%, 아내 21.8%이며, “부부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사랑의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해”, “성생활 및 갈등해결 기술을 습득해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남편 51.0% 아내 35.9%로 나타나고 있

다. 즉 개인적 측면에서 부부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은 아내가,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쪽은 남편이 약간 높게 나타나 남편과 아내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부교육 필요에 있어 가장 낮은 동기를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성생활 및 갈등해결 기술을 익혀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목은 남편 7.5%, 아내가 4.9%로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기술이나 개인의 특성 이해 및 부부간의 대화 등 다양한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서 부부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활성화되고 정착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2) 부부교육 참여 경험

부부교육 참여 여부는 부부교육 참여 경험, 참여했을 대의 도움 정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부교육 참여 여부 빈 도(%)

변 인		남 편		아 내		전 체		
		빈도	%	빈도	%	빈도	%	
참여 경험	들어보고 참여한 적 있음	43	12.1	46	11.2	89	11.6	
	참여 후 도움	매우 도움 됨	13	30.2	9	19.5	22	24.7
		조금 도움 됨	20	46.5	24	52.1	44	49.4
		보통	7	16.2	9	19.5	16	17.9
		별로 도움되지 않음	2	4.6	4	8.6	6	6.7
		전혀 도움되지 않음	1	2.3	·	·	1	1.1
	계	43	100.0	46	100.0	89	100.0	
	들어보았으나 참여하지 않음	150	42.3	180	44.0	330	43.2	
	들어보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않음	162	45.6	183	44.7	345	45.2	
	불 참여 이유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8	5.3	16	8.9	24	7.3
조건(시간, 돈)이 맞지 않아서		106	69.7	117	65.4	223	67.4	
관심이 없어서		22	14.5	20	11.2	42	12.7	
기타		16	10.5	26	14.5	42	12.7	
계	152	100.0	179	100.0	331	100.0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표 8>에 의하면,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다”는 남편 54.4%, 아내 55.2%로 부부

교육 실시는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교육에 참가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편 12.1%, 아내 11.2%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창명(1996)¹³⁸⁾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예창명(1996)은 중년기 취업주부의 경우 교육참여경험이 16.7%, 비취업주부의 경우 8.7%로 조사되어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남편 42.3%, 아내 44.0%로 아내들이 참여기회가 적거나 참여조건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실시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부를 위한 교육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 아내보다는 남편위주의 교육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표7>과 같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참여율이 적어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교육 참여 후 도움 정도는 참여경험이 있는 남편 44명, 아내 49명 총 93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편 47.3%, 아내 52.7%로 나타났다.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남편 29.5%, 아내 18.4%로 부부교육의 효과는 남편들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간 도움이 되었다”의 경우를 포함한다면 남편 75.0%, 아내 72.5%로 나타나 부부교육에 참가한 부부들 대부분이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경우도 남편 9.0%, 아내 8.2%로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부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교육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편 45.9%, 아내 54.1%가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조건(시간, 돈 등)이 맞지 않아서”로 남편 69.7%, 아내 65.4%로 나타나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시간, 비용, 장소 등에 대해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남편 5.3%, 아내 8.9%로 나타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남편 14.5%, 아내 11.2%로 남편들이 약간 높게 나타나 <표 7>과 같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도

138) 예창명(1996), 전제논문, p.72.

움이 될 것 같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부부교육 실시 방법과 형태

부부교육의 실시 방법과 형태는 부부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 교육기관, 교육방법, 강사, 참가할 때 가장 먼저 고려 사항, 참가비로 분류하였다. 부부교육 실시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일, 시간대, 교육인원, 강좌 당 교육시간, 1주·월·연 횟수, 교육 기간, 후속 모임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 <부표 3>과 같다.

<표 9>에 의하면 부부교육을 받는 적당한 시기는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가 남편 25.6%, 아내 27.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결혼 후 계속”을 “평생동안 계속”에 포함한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부부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를 제외하고 부부교육이 남편과 아내 각각 신혼~첫 자녀 출산 시기와 자녀 출산 후에 실시하는 것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어, 아마도 부부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현재 중년기임을 감안 할 때 중년기를 앞두고 있거나 중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내포된 것이라고 보인다.

송정아 외(1998)¹³⁹⁾는 통합적 접근에 의한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 미혼기의 결혼준비교육, 신혼기의 적응교육 및 부부교육과 성교육, 신혼기의 결혼과 직업 및 고부교육, 자녀아동기의 부부교육, 자녀 청소년기의 부부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및 성교육과 은퇴준비교육, 노년기의 은퇴적응교육 및 치매와 죽음준비교육 등으로 부부교육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이 단지 현재 중년기 부부인 경우, 혹은 결혼을 앞두고, 성인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부교육이 가족생활교육의 하나로서 평생교육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에 의하면 부부교육에 적당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YWCA나 여성 상담소와 같은 시민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상담소 순 이었다.

139) 송정아 외(1998), 전계서, p.35~37.

<표 9>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요구도(1)

변 수		빈도(%)		
		남편 빈도(%)	아내 빈도(%)	전체 빈도(%)
교육시기	결혼 전	76 (21.4)	97 (23.7)	173 (22.6)
	신혼~첫 자녀 출산	45 (12.7)	34 (8.3)	79 (10.3)
	자녀 출산 후	30 (8.5)	52 (12.7)	82 (10.7)
	결혼 후 계속	87 (24.5)	89 (21.8)	176 (23.0)
	평생동안 계속	91 (25.6)	114 (27.9)	205 (26.8)
	기타	26 (7.3)	23 (5.6)	49 (6.4)
교육기관	공공기관	64 (18.0)	44 (10.8)	108 (14.1)
	대학의 평생교육원	92 (25.9)	85 (20.8)	177 (23.2)
	시민단체	102 (28.7)	137 (33.5)	239 (31.3)
	상담소	62 (17.5)	90 (22.0)	152 (19.9)
	문화단체	18 (5.1)	22 (5.4)	40 (5.2)
	일반 사설학원	.	3 (.7)	3 (.4)
	종교단체	9 (2.5)	20 (4.9)	29 (3.8)
	기타	8 (2.3)	8 (2.0)	16 (2.1)
교육방법	강의와 강연	64 (18.0)	41 (10.0)	105 (13.7)
	토론과 대화	136 (38.3)	194 (47.4)	330 (43.2)
	강의와 토론	115 (32.4)	108 (26.4)	223 (29.2)
	실습과 훈련	33 (9.3)	60 (14.7)	93 (12.2)
	기타	7 (2.0)	6 (1.5)	13 (1.7)
	강사	가족생활교육사	313 (88.2)	370 (90.5)
사회유명인사		18 (5.1)	14 (3.4)	32 (4.2)
초·중·고 교사		5 (1.4)	5 (1.2)	10 (1.3)
관공서 기관장		3 (0.8)	5 (1.2)	8 (1.0)
기타		16 (4.5)	15 (3.7)	31 (4.1)
고려사항		강사진	36 (10.1)	33 (8.1)
	교육내용	223 (62.8)	223 (54.5)	446 (58.4)
	참가비	25 (7.0)	30 (7.3)	55 (7.2)
	실시기관	9 (2.5)	5 (1.2)	14 (1.8)
	강의시간	19 (5.4)	42 (10.3)	61 (8.0)
	교통사정(장소)	13 (3.7)	13 (3.2)	26 (3.4)
	가족들의 이해	25 (7.0)	45 (11.0)	70 (9.2)
	기타	5 (1.4)	18 (4.4)	23 (3.0)
참가비	3만원 미만	169 (47.6)	191 (46.7)	360 (47.1)
	3~5만원 미만	112 (31.5)	140 (34.2)	252 (33.0)
	5~10만원 미만	41 (11.5)	32 (7.8)	73 (9.6)
	10만원 이상	3 (0.8)	7 (1.7)	10 (1.3)
	기타	30 (8.5)	39 (9.5)	69 (9.0)
	계	355 (100.0)	409 (100.0)	764 (100.0)

아내의 경우는 YWCA나 여성 상담소와 같은 시민단체, 상담소, 대학의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순으로, 문화 단체나 종교단체는 아내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예창명(1996)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경우 전문연구단체, 기업이나 직장단체,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마흔회관 등의 사회복지단체 순으로 나타나고, 취업주부의 경우 기업이나 직장단체를, 비취업주부의 경우 전문연구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토론과 대화”가 38.3%, “강의와 토론”이 32.4%이고, 아내의 경우 “토론과 대화”가 47.4%, “강의와 토론”이 26.4%로 나타나고 있다. “강의와 강연”은 남편 18.0%, 아내 10.0%이며, “실습과 훈련”은 남편 9.3%, 아내 14.7%로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교육 방법에 있어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고 아주 소극적이지도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 “토론과 대화”는 그나마 익숙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지고, 역할놀이중심의 직접적인 “실습과 훈련”이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교육방식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부부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부교육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강사로 중년기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즉 “가족생활교육사”가 남편 88.2%로, 아내 9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부부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숙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 학회나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사회유명인사”, “초·중·고 교 교사”, “관공서 기관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교육내용으로 남편 62.8%, 아내 54.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부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시기에 있는 부부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편은 강사진, 참가비, 가족들의 이해, 강의시간 순으로, 아내의 경우 가족들의 이해, 강의시간, 강사진, 참가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볼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참가비도 약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교육을 실시 할 때는 참가대상에 따라 적절한 교육 내용은 물론 강의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부교육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3만원 미만이 남편 47.6%, 아내 46.7%

로 가장 많고, 3~5만원, 5~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10만원 이상도 대답하고 있고, 반면에 기타 무료로 응답한 경우도 약간 있어 부부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표 3>에 의하면 부부교육은 남편 86.2%, 아내 86.3%가 “주말”에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 강좌당 교육인원은 5~10쌍 선호가 남편과 아내 각 43.8%,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10~20쌍, 20쌍 이상, 5쌍 이하 순이다. <표 9>에서 보여지는 대로 강의나 토론, 대화를 선호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서 자신이 처한 중년기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음으로서 더욱더 쉽게 중년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시간으로 한 강좌 당 2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모두 50%가 넘어 2시간 이상의 부부교육은 지루함이나 싫증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고 보인다. 후속모임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편 35.2%, 아내 36.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창명(1996)¹⁴⁰⁾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그 이유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부교육 실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만족도, 위기감, 부부교육 요구도의 전반적 경향

부부들이 지각한 부부관계 만족도와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요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부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이들 각각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표 4>, <부표 5>, <부표 6>와 같다.

<표 10>에 의하면 중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감은 전체영역에서 남편이 17.37, 아내가 15.8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편들이 아내들 보다 중년기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6배나 더 많은 위기감을 느낀다¹⁴¹⁾는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그 이유가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영향 때문인지 혹은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40) 예창명(1996), 전계논문, p.72.

141) 김정란(1993), “중년기 위기극복에 관한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p.31.

<표 10> 하위영역별 중년기 위기감,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교육 요구도

영역 (문항)		남 편		아 내		전 체		t
		M	SD	M	SD	M	SD	
중년기 위기감	심리영역(2)	6.99	1.86	6.41	2.12	6.68	2.02	4.04***
	건강영역(3)	10.38	2.69	9.45	2.92	9.88	2.85	4.54***
	전체 영역(5)	17.37	4.31	15.86	4.77	16.56	4.62	4.60***
부부 관계 만족도	부부역할(2)	4.07	1.39	4.11	1.46	4.09	1.43	-0.40
	애정표현(2)	4.71	1.77	5.13	1.76	4.94	1.78	-3.25***
	의사소통(2)	4.79	1.63	4.89	1.59	4.48	1.16	-0.83
	여가활동(2)	5.65	2.08	5.80	1.96	5.73	2.02	-1.06
	성생활(2)	5.03	1.64	5.55	1.66	5.31	1.67	-4.33***
	전체 영역(10)	24.27	6.92	25.50	6.57	24.93	6.76	-2.52**
부부 교육 요구도	중년기 특성이해(4)	8.53	2.78	8.27	2.77	8.39	2.77	1.30
	부부관계(4)	8.02	2.87	7.80	2.72	7.90	2.79	1.06
	의사소통(4)	8.26	2.98	7.80	2.88	8.01	2.93	2.15*
	성관계 개선(4)	9.66	3.01	9.87	3.37	9.78	3.20	-0.90
	건강(4)	7.95	2.79	7.55	2.86	7.74	2.84	1.91*
	기타(5)	10.90	3.72	10.30	3.81	10.58	3.78	2.17*
	전체 영역(25)	53.35	15.17	51.63	14.96	52.43	15.07	1.57

*p<.05 **p<.01 ***p<.001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느꼈거나 행동으로 나타난 중년기 위기감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나는 요즘 우울함, 허전함,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많다”, “막연한 근심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변화수용이 어렵다”, “팔다리는 쭈시고, 몸은 무겁고, 기운이 없어 눕는 경우가 많다”의 총 5문항 중 4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4문항 모두 아내보다 남편들의 위기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년남성들이 가정이나 직장 및 사회에서 받는 경제적 또는 직업적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142)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성기능 약화, 시력저하, 체중 증가로 인해 불안하다”는 문항에서도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들이 지각한 부부관계 만족도는 전체영역이 남편 24.27, 아내 25.5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도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여가활동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점수를 보면 남편은 5.65, 아내는 5.80으로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42) 동아일보, 중년기 이혼, 남성은 “우울”, 아내는 “활발”, 1999년 8월 26일, 국제판.

부부역할 영역에서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배우자를 동등한 입장의 친구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결혼생활에서 맡은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두 문항 모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의 문항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두 번째 문항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보다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내들이 느끼는 부부역할과 남편들이 느끼는 부부역할에 차이가 있어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들은 나름대로 부부역할에 대해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애정표현 영역에서 “나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배우자가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의 두 문항 모두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두 문항 모두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보면 “나는 내 배우자를 칭찬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항에서 남편 2.50, 아내 2.4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아내들은 “나는 배우자가 말할 때 귀기울여 듣는 편이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남편은 “우리부부는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아내는 “여가활동을 통해 우리부부는 더욱 친밀해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박경숙¹⁴³⁾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생활영역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문항에서 남편 2.40, 아내 2.58점, “우리부부는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문항은 남편 2.63, 아내 2.9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아내들은 남편을 친구로 생각하고, 애정을 받고 있으며, 남편을 칭찬해주고, 여가를 함께 보내고,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남편들은 자신이 가장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잘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43)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p.55.

부부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전체영역이 남편 53.35, 아내 51.63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교육 요구 내용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중년기 특성이해, 부부관계, 성관계 개선 영역은 모두 7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남편, 아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중년기 특성이해에 대한 교육 요구는 “중년기 자아정체감 인식을 위한 교육” 문항에서 남편 2.25, 아내 2.0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신과 배우자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남편들이 더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아정체감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중년기 변화에 따른 수용 및 적응을 위한 교육은 아내들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발달단계에 따른 중년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과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요구는 남편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향상 영역에서는 “배우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해 내는 것에 관한 교육” 요구에 있어 남편 1.98, 아내 1.85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이 함께 즐기기 위한 여가활동 개발을 위한 교육을 더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맞추어 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부부의 흥미를 살려 부부가 함께 즐길만한 여가와 활동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현실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기술 영역은 남편 8.26, 아내 7.8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편들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기술”, “배우자 이해를 위한 듣기 기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문항에서도 역시 아내보다는 남편의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나 아버지들이 배우자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듣기와 말하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다른 문항에서도 남편들이 교육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이 의사소통영역에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편들이 사회생활 혹은 직장일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좀 더 갖게 됨에 따라 남편들이 그러한 교육 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

통 능력은 각 직장에서의 능률적인 업무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직장 내에서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직장환경이 보다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 직장과 사회참여에서 오는 만족감 증대와 독립성으로 중년기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다.¹⁴⁴⁾ 따라서 의사소통 영역은 부부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에는 이러한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 반응 차의 생리적·심리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요구는 남성들이 높게 나타났고, “중년기 부부성에 대한 바른 이해”, “부부성생활 점검”, “성 장애 극복”을 위한 교육 요구는 아내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중년기임을 감안할 때 아내들이 느끼는 갱년기 폐경에 따른 경험에서 나타난 요구라고 보여진다.

건강영역에서는 남편 7.95, 아내 7.5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건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지식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내용” 문항에서 남편 1.89, 아내 1.77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중년기 남성은 가족의 질병과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 “스트레스 해소법”, “갱년기 이해 및 적응”에 대한 교육 요구도 남편들이 더 높게 나타나, 아내들 보다 중년기 위기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중년기는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암이나 심장병 등의 발병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부부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며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요법도 시도하는 등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긴장과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¹⁴⁵⁾ 등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직장동료 등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서적인 관심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넓힐 수 있는 방안¹⁴⁶⁾에 대해서도 부부교육 내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남편 10.90, 아내 10.30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은

144) 고은주(1998), 전계논문, pp.5~6.

145) 유영주 외(1992), 「가족발달학」, 교문사, p.256.

146) 신기영·육선화(1991), 전계논문, p.165.

퇴 준비 및 적응을 위한 교육” 문항이 남편 2.21, 아내 2.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IMF이후 사회에 불어닥친 조기퇴직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다른 문항에서도 남편들의 교육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부간의 성 관계 개선 영역은 어떤 문항에서도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7>과 비교해 볼 때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아내들이 약간 높은데 반해 부부교육 요구는 성관계 개선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편들이 더 높게 나타나 필요성과 교육요구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배경변인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배경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변수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다.

조사 대상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개인관련 특성과 가족관련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관련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을 보면, 조사대상자 본인이 남자인 경우 17.37, 여자인 경우 15.86으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인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50세 이하 집단과 51세 이상의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에도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 학력은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덜 느끼고 있고,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종교가 기독교 혹은 천주교인 경우 중년기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고, 여가활동, 대화시간, 결혼생활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영역 모두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어도 위기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부부관계 만족도에서도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하, 중, 상의 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가 중년기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개인·가족 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개인관련변수		중년기 위기감			가족관련변수		중년기 위기감			
		M	F(t)	DMR			M	F(t)	DMR	
본인 성별	남	17.37	4.60***	A	배우자 학력	고졸 전문대졸 이상	16.48	-0.65	D	
	여	15.86					16.71			
본인 연령	45세이하	17.18	190.34***	A	배우자 직업	1	16.00	26.66***	D	
	46~50세	17.21		A		2	16.27		C	
	51세 이상	15.45		B		3	16.77		B	
본인 학력	고졸이하	16.32	-1.89*	A	배우자 직업	4	17.07	2.32*	A	
	전문대졸 이상	16.96				B				
본인 종교	불교	16.57	15.25***	B	결혼 형태	중매혼	16.08	20.32***	B	
	기독교·천주교	16.89		A		연애혼	16.63		A	
	기타	16.26		C		중매+연애	16.70		A	
여가 활동	만족	17.69	5.32***	A	결혼 여부	초혼유지	16.67	2.32*	B	
	불만족	15.88				B	기타			15.11
대화 시간	충분	17.28	2.59**	A	주거 형태	단독주택	16.39	18.48***	B	
	부족	16.27				B	아파트		16.99	A
결혼 생활	만족	17.59	8.60***	A	주택 소유 형태	기타	16.44	5.24***	B	
	불만족	14.72				B	자가		16.51	B
부부 관계 만족도	하(10-20점)	17.73	164.33***	A	가족 형태	전세	16.98	-0.28	A	
	중(21-30점)	16.33		B		기타	16.58		B	
	상(31-50점)	15.47		C		핵가족	16.55			
교육 참여 여부	경험있음	16.37	23.61***	B	가족 형태	기타가족	16.70	143.53***	C	
	들어보고 불참	16.90		A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5.58	B
	경험없음	16.29		B			200~300만원		16.47	
참여후 소감	도움됨	16.56	-0.03	A	가족 형태	300만원 이상	17.34	-0.03	A	
	도움안됨	16.60				B				

- 1) 직업 :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 2)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 미혼자녀 가족 포함), 기타가족(친척, 딸·아들부부가족 포함)
- 3) *p<.05 **p<.01 ***p<.001
- 4)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족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을 살펴보면, 배우자 직업, 결혼형태, 결혼여부, 주거 형태, 주택소유형태, 월평균 소득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Duncan's-Test 결과 네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기타집단의 경우 즉, 직업이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인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중매혼 집단과 연애혼 혹은 중매이면서 연애혼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절충혼인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13>에서 보

면 중매혼인 경우에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비교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초혼인 경우에 중년기 위기감이 높게 나타났고, 주택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일 때, 자가보다는 전세일 때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상인 집단이 중년기 위기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 월 평균 소득은 중년기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배경변인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1)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개인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부부역할 영역과 의사소통기술 영역은 본인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애정표현과 여가활동영역에서는 본인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성생활 영역은 성별, 본인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관련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5가지 영역 중 성생활 영역을 제외한 네 영역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인연령은 애정표현, 여가활동, 성생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Duncan's-test 결과 애정표현영역에서는 46-50세 집단이 45세 이하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1세 이상집단이 애정표현 영역에서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46-50세 이상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51세 이상 집단이 부부관계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성생활 영역에서는 50세 이하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역시 51세 이상 집단에서 부부성생활 영역에서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에 출현하는 문혀 있던 반대 성의 영향으로 남녀가 모두 양성성으로 변화하면서, 50대에 이르러 남녀차이가 좁혀지고 애정표현을 하게되고, 여가를 함께 즐기며, 자신의 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표 12>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변 수		부부역할 영역		예정표현 영역		의사소통 영역		여가활동 영역		성생활 영역	
		M	D	M	D	M	D	M	D	M	D
성 별	남	1.99		2.07		2.20		2.50		2.60	
	여	2.20		1.90		2.46		2.66		2.71	
	t 값	-2.91**		2.90**		-3.74***		-2.03*		-1.54	
본인 연령	45세 이하	4.08		5.03	A	4.89		5.72	BA	5.19	B
	46~50세	4.01		4.61	B	4.85		5.55	B	5.17	B
	51세 이상	4.15		5.04	A	4.78		5.88	A	5.55	A
	F 값	0.89		13.29***		0.68		4.80***		12.89***	
본인 학력	고졸이하	2.18		1.94		2.44		2.64		2.68	
	전문대졸 이상	1.96		2.05		2.19		2.51		2.64	
	t 값	2.96**		-1.70		3.41***		1.57		0.51	
본인 종교	불교	4.23	A	5.21	A	4.87	BA	6.03	A	5.66	A
	기독교·천주교	3.95	B	4.62	C	4.68	B	5.30	C	4.94	C
	기타	4.02	B	4.84	B	4.95	A	5.70	B	5.17	B
	F 값	5.19***		25.66***		3.57*		21.24***		38.92***	
여가 활동	만족	1.74		1.86		1.86		2.24		2.24	
	불만족	2.32		2.06		2.64		2.80		2.92	
	t 값	-8.53***		-3.41***		-12.16***		-7.30***		-9.83***	
대화 시간	충분	1.64		1.69		1.73		2.17		2.12	
	부족	2.29		2.10		2.59		2.76		2.88	
	t 값	-9.71***		-7.14***		-13.68***		-7.11***		-11.20***	
결혼 생활	만족	1.78		1.87		1.96		2.32		2.42	
	불만족	2.66		2.18		3.02		3.08		3.10	
	t 값	-11.58***		-5.04***		-16.95***		-9.99***		-9.76***	
중년기 위기감	하(5-13점)	4.19	A	5.22	A	5.19	A	5.97	A	5.55	A
	중(14-19점)	4.21	A	5.10	A	4.91	B	5.75	A	5.52	A
	상(20-25점)	3.82	B	4.45	B	4.44	C	5.48	B	4.84	B
	F 값	10.64***		43.07***		26.80***		8.33***		38.85***	
교육 참여 여부	경험 있음	3.95	B	4.75	B	4.22	C	5.13	C	4.69	C
	들어보고 불참	4.05	A	4.75	B	4.74	B	5.60	B	5.28	B
	경험 없음	4.25	A	5.17	A	5.10	A	6.00	A	5.50	A
	F 값	13.82***		17.87***		26.16***		20.14***		25.10***	
참여 후 소감	도움 됨	2.07		2.00		2.34		2.57		0.98	
	도움 안 됨	2.96		1.52		2.52		3.28		2.56	
	t 값	-4.34***		2.96**		-0.90		-3.28***		0.55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본인 학력은 부부역할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영역 모두 고졸이하 집단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인학력이 부부역할과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는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Duncan's-Test 결과에 의하면 애정표현, 여가활동, 성생활영역에서는 세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부부생활 영역에서는 불교집단과 그 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기독교와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집단과 기타종교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기타종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에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녀간에도 차이는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가활동, 대화시간, 결혼생활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가활동에 불만을 느낄수록, 대화가 부족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 위기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Duncan's-Test 결과 의사소통 영역을 제외한 네 집단에서 중·하위 집단과 상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며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모든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년기 위기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참여여부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역할 영역에서는 경험이 있는 집단, 들어는 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았거나 들어보지도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애정표현 영역에서는 경험도 있고 들어보았지만 불참한 집단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세 영역은 세 집단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부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은 집단의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개인관련 변수에 따른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배우자의 학력과 가족형태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우자 직업에 따라서 애정표현 영역에서 1,2,3 집단과 4집단간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1집단과 3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3집단 즉 주부인 경우 혹은 무직인 경우에 이 두 영역에서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만족도

변 수		부부역할 영역		애정표현 영역		의사소통 영역		여가활동 영역		성생활 영역	
		M	D	M	D	M	D	M	D	M	D
배우자 학력	고졸	2.14		1.97		2.39		2.57		1.00	
	전문대졸 이상	2.03		2.00		2.26		2.63		2.70	
	t 값	1.37		-0.39		1.85		-8.80		-8.87	
배우자 직업	1	4.12		5.01	A	4.74	B	5.88	A	5.46	A
	2	4.11		4.94	A	4.78	BA	5.60	BA	5.11	B
	3	4.09		5.09	A	5.02	A	5.77	BA	5.40	A
	4	4.01		4.40	B	4.55	B	5.52	B	5.07	B
	F 값	0.28		15.98***		6.80***		2.54*		6.61***	
결혼 형태	중매혼	4.26	A	5.42	A	5.13	A	6.14	A	5.78	A
	연애혼	4.06	B	4.73	C	4.71	B	5.56	B	5.12	B
	중매+연애	3.99	B	4.93	B	4.84	B	5.71	B	5.29	B
	F 값	3.24*		31.00***		9.10***		13.03***		27.26***	
결혼 여부	초혼유지	2.06		1.99		2.29		2.57		0.96	
	기타	2.62		1.90		3.15		2.88		2.62	
	t 값	-2.92***		0.79		-6.33***		-1.99*		0.30	
주거 형태	단독주택	4.17	A	4.97		4.93		5.83		5.23	B
	아파트	4.09	BA	4.83		4.74		5.66		5.30	B
	기타	3.91	B	4.99		4.78		5.59		5.51	A
	F 값	3.53*		1.80		2.44		2.60		4.90***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06		4.91		4.78	B	5.70		5.21	B
	전세	4.32		5.06	A	5.22	A	5.67		5.75	A
	기타	4.09		5.03		4.96	BA	6.09		5.79	A
	F 값	1.95		1.09		5.94***		2.85		18.22***	
가족 형태	핵가족	2.11		1.97		2.34		2.59		2.66	
	기타가족	1.97		2.12		2.35		2.59		2.65	
	t 값	1.49		-1.61		-0.06		-0.006		0.0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06		5.09	A	4.97		5.87	A	5.59	A
	200~300만원	4.08		5.00	A	4.82		5.89	A	5.17	B
	300만원 이상	4.13		4.79	B	4.77		5.55	B	5.22	B
	F 값	0.30		6.85***		2.27		8.38***		13.32***	

1) 직업 :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2)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 미혼자녀 가족 포함), 기타가족(친척, 딸·아들부부가족 포함)

3) *p<.05 **p<.01 ***p<.001

4)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1집단과 4집단간에, 성생활영역에서는 1,3집단과 2, 4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1집단 즉 전문·행정·관리직을 가진 집단이 이 두 영역에서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애정 표현 영역에서는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네 영역에서는 중매혼 집단과 절충혼 혹은 연애혼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중매혼인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부부역할, 의사소통, 여가활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세 영역 모두에서 초혼이 아닌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 부부역할과 성생활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Duncan's-Test 결과 부부역할 영역에서는 단독주택집단과 기타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단독주택일 경우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생활 영역에서는 단독주택이거나 아파트 집단과 기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의사소통 영역과 성생활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Duncan's-Test한 결과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주택소유가 자가인 집단과 전세인 집단간에, 성생활영역에서는 자가인 집단과 전세 혹은 기타인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소득은 애정표현 영역, 여가 활동 영역, 성생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Duncan's-Test 결과 애정표현 영역과 여가 활동 영역에서는 300만원 이하 집단과 3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성생활 영역에서는 200만원 이하 집단과 2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평균 수입이 낮아도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볼 때 부부관계 만족도는 수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배경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1) 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개인관련변수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중년기 특성 이해는 본인 학력·종교·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 여부에서, 부부관계 영역은 본인학력·종교·여가활동·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 여부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은 성별, 본인 연령, 학력, 종교, 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여부에서, 부부간의 성관계 개선

<표 14>개인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변 수		중년기특성 이해 영역		부부관계 영역		의사소통 기술영역		성관계개선 영역		건강 영역		기타중년기 관련 영역	
		M	D	M	D	M	D	M	D	M	D	M	D
성 별	남	8.53		8.02		8.26		9.66		7.95		10.90	
	여	8.27		7.80		7.80		9.87		7.55		10.30	
	t 값	1.30		1.06		2.15*		-0.90		1.91*		2.17*	
본인 연령	45세 이하	8.38		7.87		8.03		9.67		7.80		10.56	
	46~50세	8.71		8.02		8.46		9.97		8.12		10.98	
	51세 이상	8.20		7.87		7.71		9.77		7.42		10.35	
	F 값	1.97		.23		4.00**		.57		3.74*		1.78	
본인 학력	고졸이하	8.61		8.16		8.23		10.16		7.86		10.89	
	전문대졸 이상	8.03		7.48		7.66		9.14		7.53		10.07	
	t 값	2.71***		2.50***		2.43**		3.82***		2.13*		3.40***	
본인 종교	불교	8.70	A	8.24	A	8.41	A	9.96		7.75		10.87	A
	기독교 · 천주교	8.14	B	7.83	BA	7.80	B	9.47		7.60		10.12	B
	기타	8.19	B	7.51	B	7.66	B	9.79		7.85		10.59	BA
	F 값	2.93***		3.30***		2.62***		4.28***		1.56		2.91***	
여가 활동	만족	8.25		7.62		7.65		9.17		7.65		10.05	
	불만족	8.48		8.08		8.23		10.14		7.79		10.89	
	t 값	-1.09		-2.20*		-2.64***		-4.09***		-0.70		-2.98***	
대화 시간	충분	8.40		8.00		7.98		9.10		7.80		10.09	
	부족	8.39		7.86		8.03		10.05		7.71		10.78	
	t 값	0.20		0.62		-0.22		-3.53		0.38		-2.26*	
결혼 생활	만족	8.40		7.86		7.79		9.58		7.73		10.50	
	불만족	8.39		7.98		8.42		10.12		7.75		10.72	
	t 값	0.02		-0.53		-2.75***		-2.19*		-0.10		-0.75	
부부 관계 만족도	하(10-20점)	7.77	B	7.26	B	7.24	B	8.67	B	7.34	B	9.72	C
	중(21-30점)	8.58	A	8.07	A	8.26	A	10.07	A	7.96	A	10.68	B
	상(31-50점))	8.76	A	8.39	A	8.46	A	10.56	A	7.66	BA	11.63	A
	F 값	7.96***		9.21***		11.58***		20.33***		3.62*		12.17***	
중년기 위기감	하(5-13점)	7.78	B	7.32	B	7.63	B	9.37	B	7.28	B	9.83	B
	중(14-19점)	8.45	A	8.11	A	7.93	B	9.94	A	7.78	A	10.72	A
	상(20-25점)	8.85	A	8.13	A	8.49	A	9.90	BA	8.09	A	11.04	A
	F 값	8.79***		6.84***		5.58***		2.52**		4.71***		6.90***	
교육 참여 여부	경험 있음	7.43	B	6.96	B	7.30	B	8.87	B	7.16		9.33	B
	들어보고 불참	8.35	A	7.82	A	7.98	A	9.73	A	7.83		10.74	A
	경험 없음	8.68	A	8.23	A	8.23	A	10.05	A	7.80		10.75	A
	F 값	7.88***		8.50***		4.13**		5.44***		2.21		6.33***	
참여 후 소감	도움 됨	8.41		7.94		8.02		9.77		7.73		10.62	
	도움 안 됨	7.76		6.96		7.92		9.88		7.96		9.44	
	t 값	1.16		1.72		0.17		-0.12		-0.27		1.54	

1) *p<.05 **p<.01 ***p<.001

2)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영역은 본인학력·종교·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 여부에서, 건강은 성별·본인연령·본인학력·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에서,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은 성별·학력·종교·여가활동·결혼생활·부부관계·중년기 위기감·교육참여여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교육 참여 후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4>에 의해 변인을 중심으로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의사소통기술, 건강, 중년기 관련 기타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세 영역 모두 남편들의 요구도가 높았다. 본인 연령은 의사소통기술영역과 건강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영역 모두 46~50세 집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모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고졸 이하인 사람들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건강영역을 제외한 5개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불교인 경우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생활교육과 종교는 대체적으로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¹⁴⁷⁾으로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교육은 종교적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여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종교기관과 가치는 가족생활에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¹⁴⁸⁾ Thornton(1989)¹⁴⁹⁾은 종교와 가족과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고, 가족생활의 변화는 종교기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대처는 가족생활에서의 종교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부교육과 종교는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종교는 개인에게 안정과 위안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중년기 위기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¹⁵⁰⁾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요인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47) 오윤자(1994), 전계논문, p.44.

148) S. Hauerwas(1985), "The family as a school for character", *Religious Education*, Vol.80, pp.272-285.

149) A. Thornton(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890.

150) 신기영(1990), 전계논문, p.211.

여가활동은 부부관계영역, 의사소통기술영역, 성관계 개선영역,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영역은 모두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중년기는 자녀들의 결혼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공허감, 고독감까지 느껴 신경증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건전한 취미 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⁵¹⁾ 대화시간은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대화시간이 부족할수록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결혼생활은 의사소통기술과 성관계 개선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결혼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 두 영역에서 부부교육 요구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부부관계는 여섯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만족할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Duncan's-Test한 결과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에서만 상, 중, 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년기 위기감도 여섯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Duncan's-Test한 결과 성관계 개선영역은 하, 중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참여 여부는 건강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이 교육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나 들어는 보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

가족관련변수에 따른 부부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Test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의하면 중년기 특성 이해 영역에서는 배우자 직업·주거형태·가족형태에서, 부부관계영역은 배우자 직업·결혼형태 및 여부·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가족형태에서, 의사소통 기술 영역은 배우자 직업·결혼여부·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가족형태에서, 성관계 개선 영역에서는 배우자 직업·결혼형태 및 여부·주거소유형태·가족형태에서, 건강영역에서는 배우자 직업·결혼형태 및 여부·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에서,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에서는 배우자 직업, 결혼형태 및 여부, 주거 형태 및 소유형

151) 이정우 외(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93.

태, 가족형태, 월평균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배우자 학력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5>가족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교육요구도

변 수		중년기특성 이해 영역		부부관계 영역		의사소통 기술 영역		성 관계 개선 영역		건강 영역		기타중년기 관련 영역	
		M	D	M	D	M	D	M	D	M	D	M	D
배우자 학력	고졸	8.55		8.09		8.21		10.10		7.90		10.92	
	전문대졸 이상	8.03		7.56		7.67		9.18		7.44		9.96	
t 값		2.77		2.49		2.44		3.91		2.14		3.48	
배우자 직업	1	7.77	B	7.15	B	7.07	C	9.16	B	7.20	B	9.59	B
	2	8.41	A	8.00	A	7.88	B	9.72	BA	7.86	A	10.50	A
	3	8.59	A	8.08	A	8.36	BA	10.03	A	7.80	BA	10.96	A
	4	8.72	A	8.41	A	8.53	A	10.00	A	8.21	A	11.02	A
	F 값		4.49***		6.75***		10.17***		3.44**		3.61**		6.67***
결혼 형태	중매혼	8.38		7.76		8.14		9.84	BA	7.35	B	10.52	BA
	연애혼	8.29		7.77		7.82		9.51	B	7.67	B	10.35	B
	중매+연애	8.60		8.28		8.28		10.21	A	8.20	A	11.06	A
	F 값		.94		2.86*		2.16		3.58*		4.70***		2.71*
결혼 여부	초혼유지	8.43		8.00		8.09		9.85		7.80		10.72	
	기타	7.86		6.62		6.94		8.70		6.86		8.68	
	t 값		1.42		3.41***		2.72***		2.48**		2.29*		3.74***
주거 형태	단독주택	8.58	A	8.10	A	8.30	A	9.86		7.83	A	11.00	A
	아파트	8.40	BA	7.98	A	8.05	A	9.87		7.87	A	10.66	A
	기타	7.95	B	7.36	B	7.31	B	9.48		7.38	A	9.54	B
	F 값		3.32*		4.76***		7.77***		1.04		1.94***		10.14***
주택 소유 형태	자가	8.44		8.01	A	8.09	A	9.94	A	7.86	A	10.72	A
	전세	8.47		7.78	A	8.08	A	9.45	A	7.87	A	10.74	A
	기타	7.87		7.03	B	7.20	B	8.45	B	6.38	B	9.00	B
	F 값		1.33		3.96**		2.92*		7.33***		8.20***		6.84***
가족 형태	핵가족	8.44		7.95		8.09		9.91		7.79		10.72	
	기타가족	8.01		7.53		7.32		8.64		7.32		9.39	
	F 값		1.30		1.26		2.21*		3.34***		1.36		2.97**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48		8.05		7.85		9.78		7.59		10.23	B
	200~300 만원	8.39		7.94		8.08		10.05		7.77		10.98	A
	300만원 이상	8.33		7.77		8.09		9.60		7.82		10.53	BA
	F 값		.20		.73		.56		1.19		.45		2.63*

1) 직업 : 1(전문·행정·관리직) 2(사무·판매·서비스직) 3(주부·무직)

4(기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 포함)

2) 가족형태 : 핵가족(혼자, 부부, 미혼자녀 가족 포함), 기타가족(친척, 딸·아들부부가족 포함)

3) *p<.05 **p<.01 ***p<.001

4)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5>에 의해 변인을 중심으로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직업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의사소통 기술 영역의 경우 Duncan's-Test한 결과 1집단과 2집단, 그리고 4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장마다 요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특히 4집단 즉, 생산직, 농·수산직, 자영업, 기술직, 파트타임,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부부관계, 성관계 개선, 건강, 기타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네 영역 모두 절충혼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혼인 경우 부부관계, 의사소통기술, 성관계 개선, 건강, 기타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부부관계 영역에서 초혼이 아닌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성관계 개선영역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해 차이를 보이며, 특히 건강영역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택소유형태는 중년기 특성 이해영역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소유형태가 자기 집인 경우에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Duncan's-Test 결과 자가나 전세인 경우와 기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의사소통 기술영역, 성관계 개선영역, 기타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이 세 영역 모두 핵가족인 경우가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기타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타 관련 영역의 요구에 있어서 200~3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Duncan's-Test 결과 200만원 이하인 집단과 200~300만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명자·송말희(1998)¹⁵²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왕석순·서병숙(1995)¹⁵³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년기의 위기감이나 우울감, 아노미,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며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이는 소득이 중년기 부부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의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이 잘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152) 김명자·송말희(1998), 전계논문, p.71.

153) 왕석순·서병숙(1995), 전계논문, P.58.

7. 부부교육 요구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영향력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년들의 개인관련변수, 가족관련변수 및 심리관련 변수 중 선택된 설명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상관관계 값 및 다중공선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선택되었다. 성별에 따라 아내에 비해 남편이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으며, 종교 유·무, 본인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에 따라서도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족관련 변수로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고, 주택소유형태, 결혼여부, 가족형태,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대변 해 줄 수 있는 월 평균 가계수입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한편, 여가활동, 대화시간, 애정표현 등 결혼 만족도에 따라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모델에 포함시켰고, 부부관계 만족도와 중년기 위기경험여부가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부교육 요구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전체적으로 F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 모델들은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2%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이외에 부부교육 요구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을 좀더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년기 특성 이해 영역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종교, 배우자 교육수준, 부부관계 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경험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년기 특성 이해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본인의 종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4>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중년기 부부들의 교육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본직업, 종교, 주택소유형태, 가족형태, 월평균 소득,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경험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16> 부부교육 요구도에 대한 계변수들의 영향력

변수	중년기 특성이해 영역		부부관계 영역		의사소통 기술 영역		성관계개선 영역		건강 영역		기타 영역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관련 변수	성별(아내)	0.178	0.749	0.284	1.218	0.626	2.449*	-0.031	-0.115	0.581	2.308*	0.460	1.396	2.099	1.682
	본인연령(세)	-0.018	-0.977	0.005	0.317	-0.034	-1.676	0.0009	0.041	-0.035	-1.787	-0.026	-0.993	-0.107	-1.085
	본인교육수준	0.004	0.089	-0.062	-1.302	-0.077	-1.482	-0.136	-2.429**	-0.066	-1.288	-0.079	-1.184	-0.417	-1.683
	종교(무)	0.392	1.884*	0.665	3.260***	0.611	2.739**	0.031	0.133	-0.090	-0.411	0.137	0.477	1.747	1.604
직업 (4)	1	-0.213	-0.691	0.076	0.252	-0.244	-0.738	0.374	1.053	-0.097	0.298	0.165	0.388	0.060	0.038
	2	0.403	1.344	1.059	3.604***	0.607	1.890*	0.780	2.260*	0.370	1.168	1.187	2.863***	4.408	2.089***
	3	-0.163	-0.640	-0.212	-0.850	-0.261	-0.956	-0.620	-2.110*	-0.479	-1.780	-0.208	-0.591	-1.946	-1.457
가족관련 변수	배우자 교육수준	-0.085	-1.720*	-0.037	-0.769	-0.049	-0.928	-0.077	-1.346	-0.022	-0.424	-0.137	-2.008*	-0.409	-1.575
	주택소유형태(기타)	0.036	1.440	0.612	2.467*	0.481	1.773	0.878	3.010***	0.819	3.065***	0.873	2.494**	4.031	3.041***
	결혼여부(기타)	0.079	0.149	0.904	1.729	0.701	1.226	1.165	1.897*	0.102	0.182	1.141	1.547	4.095	1.467
	가족형태(기타)	0.089	1.459	0.125	2.107*	0.088	1.356	0.060	0.859	0.062	0.967	0.139	1.650	0.565	1.772*
가계소득(월평균)	-0.0007	-1.594	-0.001	-2.657***	-0.0004	-0.863	-0.0004	-0.856	-0.0004	-0.875	-0.0001	-0.288	-0.003	-1.420	
심리관련 변수	부부관계만족도	0.067	4.635***	0.080	5.660***	0.086	5.554***	0.128	7.687***	0.050	3.311***	0.126	6.306***	0.539	7.111***
	중년기위기 경험정도	0.106	4.853***	0.085	3.981***	0.071	3.047**	0.087	3.476***	0.074	3.204***	0.120	3.982***	0.545	4.762***
상수		3.066***		1.173		2.908***		2.742**		3.698***		2.615***		3.441***	
F value		10.465***		13.682***		9.592***		22.118***		7.344***		8.894***		14.986***	
Adj R-squar		0.161		0.205		0.149		0.170		0.114		0.138		0.221	

1) 직립 : 1=권문직, 행정·관리직 2=사무직, 판매직 3=생산직, 농·수산업, 자원업, 기술직 4=서비스직, 파트타임, 임시직, 무직, 주부
 2)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관계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종교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사무직 혹은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족형태가 핵가족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종교가 부부생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부부교육 요구도는 월평균 가계소득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예창명(1996)¹⁵⁴과 김명자·송말희(1998)¹⁵⁵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성별, 종교, 본인직업,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인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의 직업이 사무직 혹은 판매직인 경우,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영역에 대한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부부생활에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관계 개선 영역에 대한 부부교육 요구도는 본인의 교육수준, 본인직업, 주택소유형태, 결혼여부,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경험 여부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즉 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조사대상자가 사무·판매직 혹은 생산직, 농·수산업, 자영업,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초혼인 경우,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영역에 대한 부부교육 요구도는 성별, 주택소유형태,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 경험정도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인 경우, 주택소유가 자기집인 경우, 다른변수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타영역에 대한 부부교육 요구도는 본인직업, 배우자 교육수준, 주택소유형태,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 경험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즉 조사대상자의 직업이 사무직 혹은 판매직인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소유가 자기집인 경우,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4) 예창명(1996), 전계논문, p.65.

155) 김명자·송말희(1998), 전계논문, p.71.

전체적으로 볼 때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는 하위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중년기 개인관련변수와 가족관련변수보다는 부부관계만족도 및 중년기 위기경험 여부 등과 같은 심리적 관련변수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중년기의 개인적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중년기 부부교육 요구도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부부관계 만족도와 중년기 위기감 등 중년기 부부들의 심리관련 변수들이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부부관계가 긍정적인 중년들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부부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부부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년기 위기감을 수반하는 이시기를 잘 적응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부교육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년기 개인은 물론 부부들의 욕구에 기초한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년기를 대상으로 부부관계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부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에 관한 요구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중년기에 처한 사람들은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편 보다는 아내가 중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 필요 이유는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둘째, 부부교육 참가경험은 들어보았다가 남편 54.4%, 아내 55.2%로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나 돈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 후 도움 정도는 전체 73.2%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대화형태나 시간, 의사결정, 애정표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따른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부교육은 평생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육내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토론과 대화와 강의가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은 남편과 아내 모두 시민단체를 선호했다. 한편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중년기 위기감은 남편들이 아내들 보다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문항 중 “팔다리는 쭈시고, 몸은 무겁고, 기운이 없어 눕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편과 아내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중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부관계 만족도는 애정표현영역과 성생활영역에서 남편과 아내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관련특성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모든 영역에서 종교가 불교인 경우,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적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여가활동, 대화시간,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부부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관련특성의 경우 중매결혼인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 200만원 이하 집단인 경우에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곱째, 하위영역별 부부교육 요구도는 의사소통 영역, 건강영역, 기타 중년기 관련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관련 특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아내보다 남편인 경우에, 본인연령이 46~50세 집단인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일수록, 종교가 불교인 경우 부부교육 요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부부관계에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할수록,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부부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련 특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중매와 연애로 결혼한 경우, 초혼인 경우, 주거가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소유가 자가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에 부부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타 중년기 관련영역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인 집단이 부부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중년기의 일반적 특성이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본인 직업이 사무직 혹은 판매직인 경우, 주택소유가 자가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중년기 위기감 경험이 많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보였다. 표준화회귀 값을 볼 때 유의미한 5개의 변수 중 부부관계만족도가 부부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남편인 경우, 본인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소유가 자가인 경우, 초혼인 경우, 핵가족인 경우,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중년기에 처한 개인의 심리적인 사실들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연구에 사용된 객관적인 기준이 모든 중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미혼자녀가 없는 중년, 독신인 중

년,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중년, 사별한 중년의 연구와 함께 앞으로 중년을 맞이할 청소년 및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인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년기 부부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며 다양한 욕구가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년기 특성에 따른 요구를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의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부부관계나 중년기 위기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중년기 전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교육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부부교육의 필요성과 그 유익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을 사회전반에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교육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부부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중년기에 느끼는 심리적 위기감이 개인 내적 요인과 부부 및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이러한 위기감이 가족 및 사회에 파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 중년기 부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부부교육이 실시되기를 요구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부교육프로그램의 실시효과는 프로그램의 종료와 동시에 이루어져 효과검증에 제한이 있었다. 부부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중년기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년기 특성에 따라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는 교육실시 후 효과검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명자(1993), 「중년기 연구」, 교문사.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송정아 (1992), 「중년의 위기와 예방」, 생명의 말씀사.
- 송정아·전영자·김득성 공저(1998), 「가족생활 교육론」, 교문사.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영주·이순형·홍숙자(1992), 「가족발달학」, 교문사.
- 윤진(1993),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다담(2001), 「그녀는 왜 이혼했을까」, 컬처클럽.
- 이미나(2000), 「흔들리는 중년 두렵지 않다」, 한겨레신문사.
- 이연숙(1998),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학지사.
- 이정우·김명자·계선자(1990),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경수(2002), 「중년 리모델링」, CUP.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학지사.
- 한국가족관계학회 편(1998), 「가족생활교육 : 이론 및 프로그램」, 도서출판 하우.
-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도서출판 하우.

<번역본>

- D.E. papalia, S.W. Olds, R.D. Feldman(1989),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II」,
정옥분 역(1992), 교육과학사
- Daniel J. Levinson et al(1978),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Seasons of a
Man's Life)」, 김애순 역(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Daniel J. Levinson., Judy D. Levinson.(1996),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1998), 세종 연구원.
- H.Clinebell, *Growth Counselling for Marriage Enrichment*, 이종현 역(1990), 대한기독교
교서회.
- 이다 신·마치자와 시즈오, 「중년기의 위기 관리」, 이연수 역(1991), 도서출판 두남.

<논문>

- 강정희(1996),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은주(1988), “취업유무가 중년기 여성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명자(1986), “중년기 주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논문집」, 제21집, 숙명여자대학교.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1호.
- 김명자·송말희(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 김순옥(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1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결혼·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애순(2001), “디지털 시대, 중년의 문제-중년기는 위기인가, 풍요의 계절인가?”,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전략, 「제30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 김양호·배선희·송말희(2001), “중년 남성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2호.
- 김영자(1999), “중년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란(1993), “중년기 위기극복에 관한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김주혜(1994), “의사소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태현·전길양(1996),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 김현화·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1호.
-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홍숙(1994),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문혜숙·김일명(1996), “수원·화성 지역 여성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3권.
- 박경숙(1990),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경숙·김명자(1991), “중년기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1호.
- 박승옥(1992), “목회상담적 접근으로서의 중년기 가족 성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손승영(1997), “경제변화에 따른 조직 내 남성의 역할면화인식과 갈등”, 한국건강가족운동본부,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년기남성이 겪는 갈등과 극복」, 세미나자료집.
- 송말희·김명자(1999), “中年期 主婦 對象 家族生活教育 프로그램 開發-成人未婚子女와의 關係向上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2호.
- 송정아(1995), “한국 도시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1호.
- 송정아(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1호.
- 신기영(1990),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기영·옥선화(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1호.
- 여성연(1994),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 요구도 분석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예창명(1996), “중년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요구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윤자(1994a),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2호.
- 오윤자(1994b),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오윤자·유영주(1994),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2호.
- 유영주·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8권 2호.

- 유영주·오윤자·이정연(1995),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5호.
- 유은희·정현숙(1995), “신혼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 연구소 연구보고서, 제 2권.
-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 이경희·육선화(1999), “자기 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8호.
- 이성희(2002),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선택이론, 인지정서행동이론, 관계향상기법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6호.
- 이창숙·유영주(1998), “부부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1호.
- 정현숙(1998a),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가족향상프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4호.
- 정현숙(1998b), “부부관계의 기초”, 가족생활교육사(2급) 연수과정 연수교재.
- 정현숙(2001), “디지털 시대, 협공받는 중년기 가족”,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가정관리전략, 「제30차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정관리학회.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2000),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 조선경(1989),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강화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최혜경·노치영·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2호.
-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외국문헌>

- A. Thornton(1989), “Changing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890.

- C. E. Vincent(1972), "An Open Letter to Caught Generation", *The Family Coordiation*, Vol.21, N0.1, pp.143-150.
- C. J. Erdwins, J. C. Mellinger & E. E. Tyer(1981), "A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Self Concept for Young, Middle-Aged Older Wom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7.
- C. J. Skidmore & J. D. Schvaneveldt(1973), "Reaching the community through a family life conference", *The Family Coordinator*, Vol. 2.
- D. C. Borland(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Vol.8.
- D. Dinkmeyer & J. Carlson(1984), *Time for a Better Marriage*, NY:Random House.
- D. H. Olson, D. G. Fournier & J.M. Druckman(1986), *PREPARE II*, Minneapolis: Prepare Enrich Inc.
- D. Mace & V. Mace(1976), "The selec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facilitators for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Family Coordinator*, Vol. 25.
- D. Mace(1975), "Marriage enrichment concepts for research", *The Family Coordinator*, Vol. 24.
- D. R. Mace(1987), "Three Ways of Helpi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13.
- E. K. Weller(1983), "A profile of male mid-life concerns", *Unpublished doctoro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E. Leshan(1973), *The Wonderful Crisis of Middle Age*, N.Y.: Waner Paperback Library.
- E. M. Brody(1981), "Woma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Vol. 21.
- Elliott Jaques(198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Knoxville :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Erik Eriksion(1980), *Identity Life Cycle*, Norton: New York & London.
- Erik H. Eriksion(1994), *Life Cycle Completed*, Norton: New York & London.

- G. W. Wise & Velma McBride Murry(1987), “The Empty Nest : The Silent Invasion on Two Fronts”, *J of Home Economics*, Spring.
- K. Lim, Justin(2000), *Male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Dynamics, Theological Issues, and Pastoral Interventions*, Lanh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 Gordon(1993), *Passage to Intimacy*, NY: Simon & Schuster.
- L. L'Abate(1977), *Enrichment: Strutural interventions with couples, families and group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 Newman, Babara(1982), “Mid-life Development,” in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d., Benjamin B. Wolma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National Commission on Family Life Education(1968),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 A Framework for family life educators”, *The Family Coordinator*, Vol. 17.
- R. Bakalars & B. Petrich(1984), “Family life education: Its philosophy and purpose”, *The Family Coordinator*, Vol. 13, No.1.
- R. H. Ferris(1985), “Premarital preparation: An educational content design for seventh day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D. D. Andrews University.
- Robert L. Moore and Daniel J. Meckel(1990), *Jung and Christianity*, New York : Paulist Press.
- S. Hauerwas(1985), “The family as a school for character”, *Religious Education*, Vol.80, pp.272-285.

<Abstract>

Studies in the satisfaction degree of middle-aged couple relationship and the need of couple education and crisis

Lee, Eun Jeong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ye-sook

The population of the middle aged has increased rapidly but the anxiety and confusion of the middle-aged are being ignored. Many middle aged couples can experience mid-age crises from psychological changes and from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they have difficulties finding the right methods to resolve their conflicts and their problems.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information on the demand for couples education. This study contains research result on the satisfaction degree of married couple relationship, mid-age crises, the opinion on the couples education,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answerer's background. So the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mid-age couples.

1,0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arried couples who live in Jeju-do, South Korea. Collected 764 answers from 355 men and 409 women were used as the analysis data.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SAS Program Package.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y middle-aged people feel highly the needs of couples education. Wives feel more needs of couples education than husbands. The most percentage of answerer selected 'to find out methods to handle the mid-life crises' as the reason they feel the needs of education.

Second, with regard to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couples education, 54.4% of husbands and

55.2% of wives answered that they have heard of couples education.

Third, most answerers a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life. They are satisfied with the wa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s, way of decision making, and the way of love expression.

Fourth, most answerers answered that they need the couples education for their all lives, and that contents of the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when they select a certain education. The mostly preferred methods of education were discussion and lecture.

Fifth, with regard to the mid-age crisis, the crisis degree of husbands was higher than that of wives, Among the subparts of crises, health was the mostly important factor of the cris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crises.

Sixth, with regard to the satisfaction degree of couples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case of personal-relative variables, with regard to the loving areas, satisfaction degree showed in wife, the age of the fifties and under high-school mind in scholarship was more satisfied. All areas of the satisfaction degree,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religion, mid-age crisis, but low satisfaction degree showed in leisure life, talking time, married life. In case of family-relative variables, satisfaction degree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job of life partner, married type, married state, dwelling type, owned by dwelling, monthly income.

Seventh, among the sub-areas of the demand degree of couples education,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communication area, health area, and so 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case of personal-relative variables, generally wives believed in buddism in the age of late forty with low education tended to prefer more education for couple, and the demand of couple education described highly with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mid-age crisis, educational participation. In case of family-relative variables,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married type, married state, dwelling type, owned by dwelling.

Finally, the demand degree in the middle-aged couples education look around personal-relative variables, family-relative variables, psychology-relative variables. As a whole, with regard to the demand degree in the middle-aged couples education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education degree, self-job, owned by dwelling, family type,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mid-age crisis. Among the sub-areas, generally with regard to the demand degree,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in gender, age, education of life partner, married state, family type, monthly income,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mid-age crisis. Especially, the demand degree in the middle-aged couples education has a more meaningful influence upon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couple relationship.

<부 록1>

<부표 1> 질문지의 문항구성

구성 내용	세부 내용		문항 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종교, 본인과 배우자의 학력과 연령, 주거형태,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결혼형태, 결혼여부, 가족형태, 월평균 소득		10	
전반적인 부부관계	대화형태, 애정표현, 의사결정, 여가활동 및 불만 이유, 대화시간, 애정표현 정도, 결혼생활만족도		8	
부부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부부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2	
	부부교육 참여경험	참여 여부/ 참여 후 도움/ 불참 이유	3	
부부교육 실시방법 요구내용	교육시기, 교육기관, 교육방법, 강사, 고려사항, 참가비, 요일, 시간대, 인원, 강좌 당 교육시간, 교육 기간, 주/월/연 당 적당한 횟수, 후속모임		13	
중년기 위기감	위기감 경험여부		5	
부부관계 관계만족도	부부역할 영역		2	10
	애정표현 영역		2	
	의사소통 영역		2	
	여가활동 영역		2	
	성생활 영역		2	
부부교육내용 요구	중년기 특성 이해		4	25
	부부관계		4	
	의사소통 기술		4	
	성 관계 개선		4	
	건강		4	
	기타 중년기 관련 특성		5	
총 문항 수			76	

<부표 2> 부부관계만족도 및 부부교육내용 요구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해당문항	Cronbach'a
부부관계 관계만족도	부부역할 영역	2	1 - 2	.8426
	애정표현 영역	2	3 - 4	.8374
	의사소통 영역	2	5 - 6	.8365
	여가활동 영역	2	7 - 8	.8334
	성생활 영역	2	9 - 10	.8338
부부교육 내용요구	중년기 특성 이해	4	1 - 4	.7956
	부부관계	4	5 - 8	.7856
	의사소통 기술	4	9 - 12	.7857
	성 관계 개선	4	13 - 16	.7998
	건강	4	17 - 20	.7924
	기타 중년기 관련 특성	5	21 - 25	.7863

<부표 3> 부부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요구도(2)

범주형 변수		아내	남편	계			
		빈도(%)	빈도(%)	빈도(%)			
요일	평일 주말	56 (13.7) 353 (86.3)	49 (13.8) 306 (86.2)	105 (13.7) 659 (86.3)			
시간대	오전 9, 10시~12시 이전	71 (17.4)	59 (16.6)	130 (17.0)			
	오전 10, 11시~오후5시	49 (12.0)	30 (8.5)	79 (10.3)			
	오후2, 3시~오후 6시	92 (22.5)	52 (14.6)	144 (18.8)			
	오후 6시~오후 9시	99 (24.2)	96 (27.0)	195 (25.5)			
	토요일 오후~일요일 오후	85 (20.8)	103 (29.0)	188 (24.6)			
	기타	13 (3.2)	15 (4.2)	28 (3.7)			
인원	5쌍 이하	20 (4.9)	32 (9.0)	52 (6.8)			
	5쌍~10쌍	187 (45.7)	148 (41.7)	335 (43.8)			
	10쌍~20쌍	143 (35.0)	107 (30.1)	250 (32.7)			
	20쌍 이상	59 (14.4)	68 (19.2)	127 (16.6)			
강좌 당 교육시간	1시간	152 (37.2)	130 (36.6)	282 (36.9)			
	2시간	225 (55.0)	192 (54.1)	417 (54.6)			
	3시간	25 (6.1)	29 (8.2)	54 (7.1)			
	기타	7 (1.7)	4 (1.1)	11 (1.4)			
1주당 횟수	1회	54 (83.1)	48 (85.7)	102 (13.4)			
	2회	10 (15.4)	3 (5.4)	13 (1.7)			
	3회	1 (1.5)	3 (5.4)	4 (.5)			
	7회	.	2 (3.6)	2 (.3)			
월 횟수	1회	137 (58.8)	91 (47.9)	228 (29.8)			
	2회	77 (33.0)	90 (47.4)	167 (21.9)			
	3회	11 (4.7)	4 (2.1)	15 (2.0)			
	4회	8(3.4)	5(2.6)	13 (1.7)			
연 횟수	1회	35 (34.3)	36 (36.5)	70 (9.2)			
	2회	30 (29.4)	39 (40.6)	69 (9.0)			
	3회	11 (10.8)	5 (5.2)	16 (2.1)			
	4회	14 (13.7)	11 (11.5)	25 (3.3)			
	5회	4 (3.9)	.	4 (.5)			
	6회	8 (7.8)	6 (6.3)	14 (1.8)			
교육기간	1개월	116 (28.4)	109 (30.7)	225 (29.5)			
	2개월	51 (12.5)	38 (10.7)	89 (11.6)			
	3개월	94 (23.0)	78 (22.0)	172 (22.5)			
	6개월	69 (16.9)	62 (17.5)	131 (17.1)			
	12개월	38 (9.3)	11 (3.1)	49 (6.4)			
	기타	41 (10.0)	57 (16.1)	98 (12.8)			
후속모임	매우 필요	12 (2.9)	21 (5.9)	33 (4.3)			
	조금 필요	60 (14.7)	50 (14.1)	110 (14.4)			
	보통	112 (27.4)	87 (24.5)	199 (26.0)			
	조금 불필요	148 (36.2)	125 (35.2)	273 (35.7)			
	매우 불필요	77 (18.8)	72 (20.3)	149 (19.5)			
연속형 변수		M			SD		
		남편	아내	전체	남편	아내	전체
1주당 횟수		0.21	0.68	0.20	0.18	0.46	0.58
월 횟수		0.85	0.93	0.86	0.87	0.94	0.93
연 횟수		0.58	1.19	0.60	0.61	1.31	1.26
후속모임(1-5점)		3.49	3.53	3.51	1.13	1.04	1.09

1)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부표 4> 부부관계만족도 하위영역별 분류

영역	질문 내용	M		t
		남편	아내	
부부 역할	1. 나는 배우자를 동등한 입장의 친구(동반자)라고 생각한다.	1.99	2.20	-2.91**
	2. 나는 결혼생활에서 맡은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7	1.90	2.90**
예정 표현	3. 나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20	2.46	-3.74***
	4. 나는 배우자가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	2.50	2.66	-2.03*
의사 소통	5. 나는 내 배우자를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다.	2.60	2.71	-1.54
	6. 나는 배우자가 말할 때 귀기울여 듣는 편이다.	2.18	2.17	0.20
여가 활동	7. 우리 부부는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다.	2.90	2.99	-1.20
	8. 여가활동을 통해 우리부부는 더욱 친밀해짐을 느낀다.	2.74	2.81	-0.80
성생활	9. 나는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	2.40	2.58	-2.91**
	10. 우리부부는 성생활이 결혼생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63	2.97	-4.85***

<부표 5> 중년기 위기감 하위영역별 분류

질문 내용	M		t
	남편	아내	
1. 나는 요즘 우울함, 허전함,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많다.	3.21	2.96	2.88**
2. 막연한 근심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3.27	3.01	2.90**
3. 성 기능 약화, 시력 저하, 체증증가로 인해 불안하다.	3.62	3.49	1.75
4.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변화수용이 어렵다.	3.78	3.44	4.40***
5. 팔다리는 쭈시고, 몸은 무겁고, 기운이 없어 눕는 경우가 많다.	3.48	2.94	6.07***

<부표 6> 부부교육요구도 하위영역별 분류

영역	질문 내용	M		t
		남편	아내	
중년기 특성 이해	1. 중년기 변화에 따른 수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2.09	2.09	-0.1
	2. 발달단계에 따른 중년기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2.29	2.20	1.48
	3. 중년기 자아정체감 인식을 위한 교육	2.25	2.07	2.68**
	4.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1.90	1.89	0.07
부부 관계	5. 부부역할 및 부부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1.91	1.97	-0.98
	6.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	2.01	1.92	1.46
	7. 애정·감정표현 등 부부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	2.10	2.05	0.88
	8.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관한 내용	1.98	1.85	2.24*
의사 소통 기술	9. 배우자에게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대화기술	2.14	2.00	2.17*
	10. 배우자 이해를 위한 듣기기술	2.10	1.96	2.32*
	11. 부부간 친밀감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2.03	1.92	1.80
	12. 세대간(자녀·노부모)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기술	1.97	1.91	0.98
성관계 개선	13. 중년기의 부부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관한 내용	2.20	2.27	-1.05
	14. 자신과 부부성생활의 점검을 위한 교육	2.38	2.48	-1.40
	15. 성 장애 극복을 위한 교육	2.52	2.58	-0.99
	16. 성 반응 차의 생리적·심리적 이해를 위한 교육	2.54	2.52	0.29
건강	17. 중년기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	2.08	1.97	1.75
	18.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1.88	1.82	0.85
	19. 중년기에 나타나는 갱년기에 대한 이해 및 적응에 관한 내용	2.09	1.99	1.67
	20. 질병에 대한 지식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내용	1.89	1.77	1.86*
기타	21. 중년기 변화의 수용 및 적응에 관한 내용	2.12	2.02	1.56
	22. 은퇴준비 및 적응교육(노후생활 준비교육)	2.21	2.01	2.73**
	23. 자녀결혼준비교육	2.17	2.11	0.90
	24. 분노조절 및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교육	2.18	2.10	1.18
	25. 삶의 재평가(개인, 가족, 직업)	2.19	2.04	2.14*

<부록 2> 설문지

중년기 부모교육 요구도 연구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중년기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중년기임을 감안하여 설문에 응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이 연구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항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이은정

※ 개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나는 ① 남편 ② 아내입니다.

2.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3.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 학력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본 인 : 연령 () 세, 학력 () · 배 우 자 : 연령 () 세, 학력 ()

4. 귀하와 배우자의 직업은?(번호를 기입하세요)

· 본 인 : () · 배 우 자 : ()

- ① 전문직 ② 행정·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생산직 ⑦ 농·수산업
- ⑧ 자영업 ⑨ 학 생 ⑩ 기술직 ⑪ 전업주부 ⑫ 파트타임 ⑬ 임시직 ⑭ 무직 ⑮ 기 타

5. 귀댁의 주거형태는?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빌라 ④ 기타()

6. 주택의 소유형태는?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월세·사글세 ④ 기타()

7. 결혼형태는? ① 중매혼 ② 연애혼 ③ 중매+연애

8. 결혼여부는? ① 초혼(유지) ② 사별 ③ 별거 ④ 이혼 ⑤ 재혼 ⑥ 기타()

9. 귀댁의 가족형태는?

- ① 혼자서 산다. ② 부부만 산다. ③ 장남부부와 함께 산다. ④ 장남이 아닌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
- ⑤ 딸 부부와 함께 산다. ⑥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과 함께 산다. ⑦ 여러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
- ⑧ 친척, 기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

10. 귀댁의 한달 평균수입은? 월평균 ()원

※ 다음은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 부부간의 대화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고, 부인이 듣는다. ② 부인이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다.
 ③ 둘 다 서로 이야기를 잘한다. ④ 둘 다 서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
- 배우자로부터 받는 애정표현은? ① 매우 만족 ② 비교적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가정에서 중요한 일 결정은? ① 남편주도 ② 아내주도 ③ 공동 ④ 내용에 따라 각자
-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은? ① 매우 만족 ②비교적 만족 ③보통 ④비교적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①경제적인 이유로 ②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여가를 즐길 방법과 기술이 없으므로
 ④공동의 흥미거리가 적기 때문에 ⑤여가활동 선택과 활동 시 의견충돌이 많아서 ⑥ 기 타 ()
- 부부간의 대화시간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 부부간 애정표현은? ①항상 한다. ②가끔 하는 편 ③보통 ④별로 하지 않음 ⑤전혀 하지 않음
-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정 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배우자를 동등한 입장의 친구(동반자)라고 생각한다.					
2. 나는 결혼생활에서 맡은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배우자가 외출 후 돌아오는 시간이 무척 기다려진다.					
5. 나는 내 배우자를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다.					
6. 나는 배우자가 말할 때 귀기울여 듣는 편이다.					
7. 우리 부부는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다.					
8. 여가활동을 통해 우리부부는 더욱 친밀해짐을 느낀다.					
9. 나는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					
10. 우리부부는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다음은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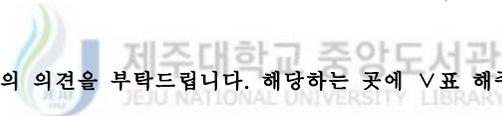
평소 귀하가 느꼈거나 행동으로 나타난 바를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정 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요즘 우울함, 허전함, 무의미함을 느낄 때가 많다.					
2. 막연한 근심걱정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3. 성 기능 약화, 시력 저하, 체증증가로 인해 불안하다.					
4.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변화수용이 어렵다.					
5. 팔다리는 쭈시고, 몸은 무겁고, 기운이 없어 늙는 경우가 많다.					

*** 그 외에 중년기 위기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부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성공적으로 중년기를 보내기 위한 부부교육에 관해 들어보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보고 참여 한적이 있다.(다음 2번 질문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② 들어보았으나 참여 한적은 없다.(3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③ 들어 본적도 없고 참여 한적도 없다.(4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2. 부부교육에 참가하고 난 후? ① 매우 도움 ② 조금 도움 ③ 보통 ④ 별로 도움됨 ⑤ 전혀 도움 안됨
3. 부부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①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② 조건이 맞지 않아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기타 ()
- 4-1.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년기 부부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다음 질문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②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다음 질문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③ 전혀 그렇지 않다.(다음 1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④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다음 1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 4-2. 부부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인간발달단계를 알아 중년기에 처한 현재의 부부관계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② 사랑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③ 부부간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④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⑤ 아름다운 성생활 및 갈등해결 기술을 익혀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⑥ 기 타 ()



※ 부부교육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부부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 전 ② 신혼~첫 자녀 출산 ③ 자녀 출산 후 ④ 결혼 후 계속 ⑤ 평생동안 계속 ⑥ 기 타
2. 귀하가 부부교육에 참여하신다면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 일(요일) ② 주 말
3. 부부교육에 참여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강사진 ② 교육내용 ③ 참가비 ④ 실시하는 기관 ⑤ 강의시간 ⑥ 장소 ⑦ 가족들의 이해 ⑧ 기 타
4. 부부교육에 참여하신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오전 9시, 10시 시작 ~ 12시 이전에 종료 ② 오전 10시, 11시 시작 ~ 오후5시 이전에 종료
 ③ 오후 2시, 3시에 시작 ~ 오후6시 이전에 종료 ④ 오후 6시 정도에 시작 ~ 오후9시 이전에 종료
 ⑤ 토요일 오후에 시작 ~ 일요일 오후 종료 ⑥ 기타 ()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시간을 선택하셨습니까?()
5. 부부교육에 참여하신다면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회) ② 한달에 (회) ③ 1년에 (회) ④기타 ()
6. 한 강좌 당 교육시간은?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기타()
7. 부부교육기간은 ?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⑤ 12개월 ⑥ 기타()
8. 학습 진행방법? ① 강의와 강연 ② 토론과 대화 ③ 강의와 토론 ④ 실습과 훈련 ⑤ 기타 ()

9. **함께 참여할 교육생 인원?** ① 5쌍 이하 ② 5쌍 ~ 10쌍 ③ 10쌍 ~ 20쌍 ④ 20쌍 이상

10. 한 프로그램 당 부부교육 **참가비**는?

① 3만원 미만 ② 3~5만원 미만 ③ 5만원~10만원 미만 ④ 10만원 이상 ⑤ 기타 ()

11. 부부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기관(시청, 도청 등) ② 대학의 평생(사회) 교육기관 ③ 시민단체(YWCA, 여성상담소 등)
 ④ 상담소(상담센터, 여민회 등) ⑤ 문화단체(언론기관, 백화점 등) ⑥ 일반시설학원(학원, 강습소 등)
 ⑦ 종교단체 ⑧ 기타()

12. 부부교육 강사는? ①가족생활교육사 ②사회유명인사 ③초, 중, 고 교사 ④관공서 기관장 ⑤기타()

13. **후속모임**은?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조금 필요 ⑤ 매우 필요

※ 다음은 부부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중년기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정 말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중년기 변화에 따른 수용 및 적응을 위한 교육					
2. 발달단계에 따른 중년기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3. 중년기 자아정체감 인식을 위한 교육					
4. 중년기 위기극복을 위한 교육					
5. 부부역할 및 부부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6.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					
7. 애정·감정표현 등 부부사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					
8. 함께 즐길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해내는 것에 관한 내용					
9. 배우자에게 자기표현을 하기 위한 대화기술					
10. 배우자 이해를 위한 듣기기술					
11. 부부간 친밀감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12. 세대(자녀·노부모)간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기술					
13. 중년기의 부부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관한 교육					
14. 부부성생활의 점검을 위한 교육					
15. 성 장애 극복을 위한 교육					
16. 성 반응 차의 생리적·심리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17. 중년기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					
18.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19. 갱년기에 대한 이해 및 적응에 관한 내용					
20. 질병에 대한 지식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내용					
21. 중년기 변화의 수용 및 적응에 관한 내용					
22. 은퇴준비 및 적응교육(노후생활 준비교육)					
23. 자녀결혼준비교육					
24. 분노조절 및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교육					
25. 자녀독립 후 부부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에 관한 내용					

*** 그 외 원만한 중년기 부부관계를 갖기 위해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부부에 대한 교육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